

RR 2012-03

대학 유형 및 특성에 따른 국제화 추진 전략 연구 (II)

대학 영어강의 정책의 효과적 추진전략 탐색

연구책임자 변기용

대학 유형 및 특성에 따른 국제화 추진 전략 연구 (II)

대학 영어강의 정책의 효과적 추진전략 탐색

연구책임자	변 기 용(고려대학교)
전임연구원	전 재 은(고려대학교)
공동연구원	조 영 하(경희대학교)
연구보조원	김 누 리(고려대학교)
연구보조원	김 희 연(고려대학교)
연구협력관	문 희 석(교육과학기술부)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비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소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머리말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경쟁력 확보는 국가 역량을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고등교육의 규모나 발달 정도를 막론하고 대학의 국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과 정부도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해외 교육기관 유치, 영어강의 등 여러 방면으로 대학 국제화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 영어강의 정책의 확대는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직접적 영향과 여러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개선방안과 시사점 도출을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제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한 지 10년이 다 된 시점에서 이를 오래 시행해 온 대학이나 이제 갓 시행했거나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들을 위해 영어강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고등교육정책연구소인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는 국내 대학의 영어강의 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국내 대학의 영어강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대학 국제화의 추구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고등교육정책연구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교육과학기술부 여러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 10월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박기용

연 구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여 년간 대학의 국제화는 국내 고등교육의 선진화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화를 위해 국내 대학들이 사용해 온 대표적 추진 전략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 협정 증대, 그리고 영어강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단위 대학의 노력으로 외국인 유학생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일부 대학들의 경우 영어강의 개설 비율이 지난 5년여 간 약 5%에서 40%가량 증가하는 등 많은 대학에서 영어강의 증대에 힘써 대학 국제화에 대한 팔목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양적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 외에 대학의 목표 달성, 특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영어강의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업준비 지원, 평가방식 개선, 수준별 반배치 등과 같은 개선방안(강소현, 박혜선, 2004a, 2004b; 강순희 외, 2007; 오희정 외, 2010; 홍성연 외, 2008)을 제시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학술적 논의가 가열화되고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연구(예컨대 Byun et al., 2011)를 제외하고 이들 논의의 중심에서 인용되고 있는 많은 선행 연구들은 대개 교수학습(교육방법)적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강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영어강의를 시행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제도적 혹은 정책면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강의와 관련된 이슈를 제도적 측면과 수업효과 제고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위 대학 차원에서 영어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제반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단위대학 차

원에서 좀 더 효과적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개별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대상자는 영어강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인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영어강의 담당 교수자와 학생들 총 41명으로 외국인 교원과 유학생도 포함되었다. 면담질문은 문헌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개발하였고, 영어강의 정책의 목적, 목표 달성 정도, 영어강의의 장점 및 어려움, 영어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질문하였다. 면접 자료는 학교별로 면접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분류된 영어강의 정책 및 제도적 측면, 수업의 효과 및 형평성 측면, 그리고 영어강의 개선점 등의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공계열 및 영어실력에 따른 영어강의 경험과 영어강의 정책에 대한 의견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면접자료를 학교별로 분석한 연구자들은 분석에 사용한 코딩과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두 학교의 결과를 비교,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어강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영어강의 정책의 목적, 정책형성 및 시행방법에 대한 비판적 관점, 영어강의 참여의 동기, 효과성 및 형평성 등에 대한 주제를 논의한 후, 영어강의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영어강의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

이번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학 구성원들이 영어강의에 대해 보인 태도가 2000년대 초중반 영어강의 시행 초기와는 달리 변화한 부분이다. 국내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시행한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분분했다. 그러나 이제는 영어강의가 필요한 때임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영어강의 정책을 해당 대학, 전공, 교수와

학생에 따라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의견이 더 두드러지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즉, 영어강의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의에서 영어강의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개선방향 논의라는 영어강의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영어강의의 정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반적인 영어강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앞으로 정부 및 개별 대학에서 영어강의 정책을 추진하고 구체적 전략을 수립할 때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나. 영어강의정책의 목적과 달성도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구성원들에게서 영어강의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대한 공통된 답들은 대학의 국제화, 대학 평가 및 순위 개선, 그리고 학생의 영어실력 향상 등이었다.

첫 번째로 두 학교 구성원들 모두 대학의 국제화가 영어강의정책의 주목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였지만, 각 학교 문화에 따른 답변의 차이도 살펴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은 영어강의란 대학 국제화를 통해 고려대학교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 목적의 일환으로 평가하였지만 앞으로는 영어강의의 양적 확대만이 아닌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영어강의정책의 목적이란 대학 평가 및 국내외 대학 랭킹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즉, 영어강의정책을 통해 영어강의 수업 비중을 높임으로써 대학 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영어강의정책의 목적을 학생의 영어실력 향상으로 보는 의견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경희대학교는 학과 당 영어강의 할당이 있는데, 이는 대학이 보여주는 교육철학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즉, 대학에서 해당 전공 우수자를 졸업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영어 능력을 배출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후자에 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외 고려대학교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영어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인터뷰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수긍하였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입장의 의견들도 다수 나왔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은 영어강의정책의 목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거나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영어강의의 목적 자체에 대해 의문을 던졌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영어강의를 보면 대학에서 과연 영어강의가 학생의 배움보다 앞서는 것인지 등 매우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즉,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개별 대학기관은 구성원들에게 영어강의를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함께 논의하며 그에 맞는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 하되 학생의 배움을 우선시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영어강의정책의 형성과정과 시행과정

인터뷰에 응한 많은 교수와 학생들은 영어강의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영어강의정책의 **일방향성과 천편일률적 적용**을 지적하였다. 둘째로, 영어강의 시행 정책 초기에는 정책의 정착을 위해 일률적 적용이 불가피했더라도 이제 시행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영어강의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어강의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개선의 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학생을 위한 교육적 목적과 같이 정작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도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의 경우는 영어강의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변하여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영어강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희대학교의 부분영어강의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아래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라. 영어강의 참여 동기

영어강의 참여의 동기는 영어강의 정책의 강제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수들이 영어강의를 가르치는 동기는 임용 계약상 필수이거나 학교로부터 의무로 부여되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영어강의 이수가 졸업요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어강의 과목들을 수강하였고 이러한 강제성 때문에 수강 의욕이 떨어진다는 학생도 있었다. 또 절대평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수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영어에 대한 흥미와 실력 향상을 위해서 영어강의를 수강하거나 영어강의의 토론식 수업 방식과 참여가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를 선호하거나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편한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영어강의의 효과성

영어강의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었으나 부정적인 쪽의 의견이 더 다양하고 지배적이었다.

영어강의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특히 영어로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신장되며, 전공 지식을 쌓고 영어점수 및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주로 교수들의 관점이었는데 학생들도 특히 심리학과 같이 서구 학문 전통이 강한 사회과학 전공들의 경우 영어강의로 수업을 들으면 전문 용어 학습에 용이하고 독해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였다. 또 학생들은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가 자극을 받고 영어를 배워야하는 필요성을 느끼게끔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외 강의중심이 아닌 토론과 참여가 자유로운 강의 분위기를 영어강의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어실력 향상이라는 영어강의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첫째, 경희대학교의 학생들이 지적하였듯 영어실력이 늘었다하더라도 어휘력과 독해 능력을 비롯한 영어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실력이 향상되었을 뿐이고, 전공지식보다는 어학능력만 늘었다는 자조 섞인 설명을 덧붙였다. 둘째, 영어는 수업에서 지식을 배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영어실력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아직 교수나 학생이나 영어 실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더 어렵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학생들도 이러한 의미에서 원어민이 영어를 가르치는 실용회화 위주의 수업은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설명하였다. 셋째, 영어강의를 통해 실제 영어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영어 사용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만 받게 되며,

마지막으로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은 원래 영어실력이 좋았던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흥미로운 부분은 교수들이 영어강의는 교수들 자신의 영어실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점이다. 영어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교수 본인의 영어감각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교수들의 이러한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신랄히 비난하였다.

위와 같이 학생과 교수들은 영어강의가 교수와 학생의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 의견도 있는 반면, 영어강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지적이 압도적이었다.

첫 번째는 교수의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기인한 전달력의 한계이다. 교수의 전달력이 부족하여 강의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한 학생은 등록금을 내고도 마땅히 받아야 할 양질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교수도 교육자로서 본인의 선택이 아닌 영어강의를 강제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날카로이 지적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교수들은 수업 담당 교수가 아무리 영어를 잘 한다 해도 학생들의 영어 이해도가 떨어지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양방지식 전달 한계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학“교육 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수에게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한편 이에 편중한 일부 교수들의 “직무태만이라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자괴감”과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토로하였다.

덧붙여 교수들은 영어강의 수업 현장에서 영어로 준비한 강의 내용만을 진행하다보니 그 외 다양한 사례나 강의 내용 이외의 사회적 이슈와 개인적 경험 또는 수업환기용 농담 등 다양하고 풍부한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 영어강의 수업에서는 수업의 수준과 질이 저하되어 대학교 수준의 수업이 아닌 마치 중학교 수준 정도의 전공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고백하였다.

면접참여 학생들도 영어로 강의하는 경우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는데, 심지어 영어강의 수강 이수 같은 전공 과목을 한국어 강의로 재수강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교수가 영어를 잘 한다 하더라도 학생이 이해를 못해 교수가 다시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면 수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경희대학교 학생들도 영어강의 수업에서마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의미도 없고 교수도 포기하고 수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는 영어가 도구일 뿐인데 수업의 질과 내용보다도 영어가 앞서는 주객전도의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즉, 영어강의로 수업을 하는 것은 “영어공부도 아니고 전공공부도 좀 덜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는 첫 번째 문제로 지적된 영어강의의 수업 내용 전달력 한계와 연결되는 문제점이다.

세 번째로 지적된 영어강의의 부정적 측면은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수가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학생들은 영어 강의 수업을 따라잡고 수업에서 놓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수업 시간에 교수와 학생 간의 교류가 부족한 부분이었다. 교수가 강의 외 내용을 공유하거나 주의 환기용 농담 등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도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교수와 서로 어색하고 낯설게 느끼고 있었다.

다섯 번째는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수업중 학생들의 참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영어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영어강의 수업 시간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도 학생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본인이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는 무기력한 순응과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결국은 영어강의를 회피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소위 영어강의로 인한 대학 내 계층화(English divide; Jon & Kim, 2011) 또는 계층화(박소연, 2008)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영어강의 시간 중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역으로 외국인 유학생도 영어강의

시간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바. 영어강의의 효과성에 문제점을 초래하는 원인

위와 같이 영어강의가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에 대해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었다. 우선 교수의 입장에서는 첫째,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또 교수들은 학생들이 입학하여 영어강의를 들을 역량을 기르고 적용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 간의 영어실력 편차가 큰데 이는 대학 이전의 교육환경 영향이 결정적이므로 자칫 교육의 기회와 결과의 세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세 번째는 전공 특성에 따라 영어강의가 어렵다는 설명인데, 이것도 전공자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흔히 영어강의가 매우 적절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영학이나 심리학의 경우도 영어로 강의할 때 사례연구와 상담현장 등 전공 내용상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영어강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수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발음이 좋지 않아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강의 담당 교수가 강의 의무를 학생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즉, 교수가 강의로서 설명해야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학생 발표와 프로젝트로 수업을 메꾸는 현상이 지적되었다.

사. 영어강의에 따른 형평성 문제

영어강의의 형평성에 대해서 면접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강의는 교육적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첫째, 영어강의는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개인별 영어실력에 따라 불공평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영어실력이 좋은 교수와 학생들에게는 편리하고 유리하며, 교수는 강의를 낮은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진행하고 학생의 경우 절대평가로 좋은 성적과 편하게 졸업할 수도 있다. 또한 영어실력에 따라 영어강의의 학점

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영어강의가 불공평하다고 여겨졌으나, 일부 교수들은 꼭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학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두 번째로는 영어가 강의내용의 전달수단에 그치지 않고 강의 내용의 이해도와 성적에 연결되어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이나 조기유학 경험과 같은 대학 이전 교육배경에 따라 성적이 가늠되어 이러한 배경이 없는 학생들에게 영어강의는 불공평하다고 지적된 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교수가 영어강의정책이 한국 사회의 엘리트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영어는 엘리트 계층이 기득권의 재생산을 위해 발명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세 번째는 학생의 학습권 면에서 영어강의의 불공평한 면이었다. 한국어강의가 배재된 영어강의만 개설하는 경우 학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수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받았다.

아. 부분영어강의 제도

경희대학교의 영어강의는 완전영어강의와 부분영어강의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영어강의제도는 경희대학교 영어강의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부분영어강의는 완전영어강의와 달리 수업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하는 영어강의를 지칭한다. 그러나 부분영어강의제도에 대한 학교 측의 제도적 기준과 지침이 미비하여 영어강의에서 어느 정도로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재만 영어로 된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하거나 영어강의인데도 교수가 학생과 한국어로 강의하기로 합의하는 형태 등의 편법적 운영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영어강의제도에 대해 경희대학교 구성원들 간 찬반의 입장이 대립하였는데, 부분영어강의지만 한국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순기능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이 있었다. 반면 부분영어강의와 같은 방식은 영어강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편법적 교수법

이며 단순히 대학평가와 순위를 위해 영어강의비율을 올리려고 개발한 방법일 뿐이라는 부정적 입장도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본 연구의 결과 국내 대학의 영어강의는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 많은 한계를 동시에 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한계의 상당부분은 영어강의 시행방식상의 강제성과 유연성 부족에 기인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각 대학에서의 영어강의정책은 대학 기관의 준비 상황, 전공별 특성 그리고 교수 및 학생의 영어실력과 필요성 등에 따라 유연성 있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영어강의 정책을 모든 학과, 대학에 일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준비단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시하고, 강의 참여자의 개인차와 요구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즉,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양적 확대 위주의 영어강의정책에서 영어강의의 질과 내실을 다지는 것으로 정책의 초점이 전환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전환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학생의 학습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통해 습득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어강의의 방식은 이러한 기본전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 향후 영어강의정책의 포커스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에는 이제까지 일률적 영어강의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수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영어 약자”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영어강의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 제언과 방안은 다음과 같다.

나. 일선 대학에 대한 제언

1) 영어강의 정책 형성 과정

첫째,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하는 대학들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영어강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영어강의의 목적이란 대학의 국제화, 대학 순위, 학생의 영어실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 등으로 생각한다는 여러 가지 대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어강의의 양적 성장만을 추구한 정책의 결과, 학생을 위한 교육이 소외되는 현상 등에 대한 비판의 의견들도 함께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중점을 두는 대학들은 그 구성원들과 함께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합의해가는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영어강의 정책의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방적 하향전달식이 아닌 상향식(bottom-up decision-making process)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각 학과나 단과대학이 영어강의의 필요성과 그 필요한 정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배하여, 학과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공별로 차이를 감안하여 영어 강의 의무수강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어강의의 무조건적 양적 팽창의 정책을 지양하고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2) 영어강의 정책과 참여자

또한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영어강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 모두 영어강의정책의 강제성에 대해 소리 높여 비판하였다. 우선 학생들이 영어강의와 한국어 강의 중 선택할 수 있는 수업 선택권을 갖도록 하여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 교수도 강의의 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인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교수 임용에서 영어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영어 강의가 수월한 영어 원어민 교수와 강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교수

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그리고 보편적 영어강의 정책이 아니라 필요한 인원만큼 영어강의 담당자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영어강의 담당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강의 시수를 조절해주며 수업 보조 등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 영어강의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교수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3) 영어강의 운영 방법

영어강의 개설 및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나온 중요한 의견 중 하나는 학생의 영어실력에 따라 영어강의를 분반하자는 것이었다(김명환, 2007; 오희정 외, 2010). 즉,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 정책과 달리 여러 수준별·단계별 영어강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선택 폭도 넓히고 좀 더 효과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영어강의의 개설과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예컨대 고려대학교의 실용영어와 같이 영어 회화 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 강의나 영어강의 수강에 도움일 될 수 있는 별도의 수업이 많이 개설되기를 희망하였다. 또 영어 잘 하는 학생들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 Pass/Fail로 들을 수 있는 1, 2학점짜리 수업과 같이 영어를 잘 못해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 개설을 제안하였다. 영어강의 수업에서 한국어 혼용이 공개적으로 허용되기를 원하는 학생도 있었고, 교수가 수업에서 학생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이 영어강의 시간에는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영어강의정책을 확대 실시할 경우, 교수와 학생이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교수가 영어로 강의를 가르치고 또 학생은 영어강의를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게끔 돕는 여러 지원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 중요한 점은 영어강의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학교 측은 영어강의 진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의 부분영어 강의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강의에서 한국어 혼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면 어떠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쓰도

록 허용할지를 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히 결정한 후 영어강의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 강의를 포함한 원어강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참고할 만하다.

4) 전공계열별 영어강의의 운영

마지막으로 현 영어강의 정책이 전공 계열과 개별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은 앞서 여러 번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이공 계열과 인문사회 계열별로 영어강의 정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이공 계열에서 중요한 것은 저학년 때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을 착실히 다질 필요가 있으므로 학년별로 차별화된 영어강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학년을 위한 전공 핵심 과목들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가르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박혜숙 외, 2006; 박혜숙, 2009), 여기에는 이공 계열에서는 전공 수업과 마찬가지로 전공 공부를 위해 중요한 교양필수 과목들도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공 계열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수월하게 듣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선는 관련 영어 단어집만을 정리하여 제공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수학과 과학 분야 과목을 쉬운 영어로 들을 수 있는 기초 영어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즉, 미국의 중고등학교 기초 수준의 영어로 된 수학과 과학 수업 자료를 학교에서 제공해주어 학생들이 이를 기반으로 전공 심화과정의 영어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공 계열과 달리 인문 및 사회계열의 경우는 1, 2학년 때부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화 중심의 실용영어 수업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듯이, 영어실력을 높리기 위한 목적의 수업들이 좀 더 많이 개설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학문을 위한 영어, 실용 영어, 토론을 위한 영어 등의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다. 정부 및 언론기관 등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결과 영어강의와 관련하여 일선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정부 정책 및 언론기관의 평가 등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개별대학의 영어강의 시행방식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와 내용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여기서 이를 상론하지는 않겠지만, 개괄적인 수준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수년간 수도권 사립대학에서 영어강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중앙일보 등 언론평가에서 영어강의 비율을 국제화의 주요한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와 함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영어강의를 예전처럼 평가지표로 삼아 이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별 대학 스스로 영어강의에 대한 (내/외부적) 질적 검증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국제화 수준을 쉽게 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서 너도 나도 영어강의 비율 증대에 나섰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양적 팽창 위주의 영어강의 확대 정책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강의 강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학 내부 혹은 외부적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지만 일부 영어강의들은 학생들의 학습 성과나 영어능력 증진 양면 모두에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관단위 평가 인증을 하고 있고, 경영학, 건축학, 의학 등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제도도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평가기제를 통해 현재 각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영어강의의 질을 평가하고 이것이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사례와 대비한 우리나라의 영어강의 시행방식의 효과성 측면이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인근국가(중국,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을 불러 영어강의의 효과와 시행방식에 대해 논의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동아시아 국가에서 영어강의의 주된 대상은 외국인 학생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기존 프로

그램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모든 강좌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강의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물론 조건이 되는 내국인 학생들도 이러한 영어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Byun et. al(2011)이 지적한 바대로 교육과정상 영어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혹은 규정에 의해 영어로 강의해야 하는 (신임) 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강의하는 아이러니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한 보다 본격적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어강의를 시행하는 것이 비영어권 아시아 국가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해 보다 실증적인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별써 영어강의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 중 차대한 문제를 여전히 ‘막연한 감(gut feeling)’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정부와 학계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II. 국내 대학 영어강의에 대한 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	4
1. 국내 대학의 영어강의 관련 정책 및 현황	4
2. 선행연구 분석	7
III. 연구대상 및 방법	18
1. 연구대상	18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IV. 영어강의 정책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고려대학교 사례	23
1. 사례대학의 특징 및 영어강의 정책	23
가. 개관	23
나. 영어강의정책	24
2. 교수	25
가. 정책 및 제도 측면	25
1) 영어강의의 필요성 및 성과	25
2) 영어강의 시행방식	32
3) 동기, 보상과 유인	35
나. 수업 측면	36
1) 효과성	36
2) 형평성	39
3) 영어강의의 수업효과를 저해하는 요인	41

다. 효과적 영어강의를 위한 개선방안	46
3. 학생	51
가. 정책 및 제도 측면	51
1) 영어강의의 필요성 및 성과	51
2) 시행방식	55
3) 수강동기	60
나. 수업 측면	62
1) 효과성	62
2) 형평성	67
3) 영어강의의 수업효과를 저해하는 요인	68
다. 효과적 영어강의를 위한 개선방안	70

V. 영어강의 정책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경희대학교 사례	77
1. 사례대학 특징 및 영어강의 정책	77
가. 개관	77
나. 영어강의정책	78
2. 교수	79
가. 정책 및 제도 측면	79
1) 필요성 및 성과	79
2) 시행방식	84
3) 강의동기, 보상과 유인	91
나. 수업 측면	93
1) 효과성	93
2) 형평성	98
3) 비효율	100
다. 효과적 영어강의를 위한 개선방안	101
3. 학생	103
가. 정책 및 제도 측면	103

1) 필요성 및 목적	103
2) 시행방식	105
3) 수강동기, 유인 및 보상	108
나. 수업 측면	109
1) 효과성	109
2) 비효율	115
다. 효과적 영어강의를 위한 개선방안	116
VI. 영어강의 정책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관점 비교 분석	119
1. 영어강의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	119
2. 영어강의정책의 목적과 달성도	120
3. 영어강의정책의 형성과정과 시행과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	122
4. 영어강의 참여의 동기	123
5. 영어강의의 효과성	124
6. 영어강의 문제점의 원인	128
7. 영어강의의 형평성	129
8. 경희대학교의 부분영어강의제도	130
VII. 결론 및 제언	132
1. 결론	132
2. 제언	133
참고문헌	141

표 차 례

<표 1> 주요 대학 영어강의 비율: 2006년과 2011년	5
<표 2> 대학별 영어강의 개설 현황(2011년 1학기)	19
<표 3> 2012년 기준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규모 및 국제화 정도	19
<표 4> 인터뷰 참여자: 교수	20
<표 5> 인터뷰 참여자: 학생	21
<표 6> 외국인 학생 현황	24
<표 7>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여 년간 대학의 국제화는 국내 고등교육의 선진화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화를 위해 국내 대학들이 사용해 온 대표적 추진 전략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 협정 증대, 그리고 영어강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단위 대학의 노력으로 외국인 유학생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일부 대학들의 경우 영어강의 개설 비율이 지난 5년여 간 약 5%에서 40%가량 증가하는 등 많은 대학에서 영어강의 증대에 힘써 대학 국제화에 대한 팔목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양적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 외에 대학의 목표 달성, 특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영어강의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학들이 “무늬만 영어 강의”로 영어강의로 개설된 과목을 사실상 한국어로 진행한다거나, 영어강의가 학습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저해하고 수업내용이 영어강의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대학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억지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빈발하고 있으며(탁상훈, 2011), 한편으로 영어강의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주로 영어강의의 효과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적 지적을 상당부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강소연 외, 2004; 김명환, 2007; 김민정, 2007; 박소연, 2008; 오희정 외, 2010; 장나영, 2011; Byun et al., 2011).

이렇듯 현재 국내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강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성과도 없지 않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업준비 지원, 평가방식 개선, 수준별 반배치 등과 같은 개선방안(강소현, 박혜선, 2004a, 2004b; 강순희 외,

2007; 오희정 외, 2010; 홍성연 외, 2008)을 제시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학술적 논의가 가열화되고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연구(예컨대 Byun et al., 2011)를 제외하고 이들 논의의 중심에서 인용되고 있는 많은 선행 연구들은 대개 교수학습(교육방법)적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강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영어강의를 시행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제도적 혹은 정책면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어강의의 문제점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는 교수방식, 강좌규모 등 교수·학습 방법상의 문제점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제화 경쟁 혹은 외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평가점수 올리기 등에서 촉발된 교수·학생들의 준비상황이나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 시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서는 영어강의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당초 주창자들이 의도한 영어강의의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는 데는 본질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강의와 관련된 이슈를 제도적 측면과 수업효과 제고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위 대학 차원에서 영어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제반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단위대학 차원에서 좀 더 효과적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어강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수의 사립 종합대학들을 선정하여 직접 영어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들과 영어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영어강의란 “한국인 혹은 외국인 교수가 한국대학에서 한국인/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여 진행하는 강의”를 의미한다. 구분의 어려움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영어강의에 외국인 교수가 강의하는 경우도 포함시켰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어강의 이슈의 본질적 문제는 한국인 교수가 한국인 혹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이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도 “한국인 교수가 한국대학에서 한국인 및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강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이슈에 그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강의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 사례분석 대상 대학에서의 영어강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교수와 학생들의 시각을 통해 알아본다. 동시에 교수와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영어강의의 필요성, 시행방식상의 문제점, 영어강의 수강동기와 인센티브 등을 살펴본다.

둘째, 영어강의 수업의 효과 측면에서 사례분석 대상 대학에서 영어강의가 현재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교수와 학생의 시각에서 알아본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성과, 교수들의 준비도 등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어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수업방법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인터뷰를 통해 면담 참여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강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II. 국내 대학 영어강의에 대한 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

1. 국내 대학의 영어강의 관련 정책 및 현황

국제화 시대흐름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에서의 국제화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영어강의 확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영어강의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의 직업과 학문적 추구를 위한 국제적 능력을 함양시키고, 영어강의 실시를 통한 외국인 교원과 학생들의 교류를 증진시키며 한국인 교수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통해 국제적인 학문교류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있다(MoEHRD, 2007; Byun et al., 2011에서 재인용). 또 정부는 대학 국제화를 위해 2004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1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였고(교육인적자원부, 2004), 2007년에는 ‘국제화 전략’을 통하여 국제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대학의 영어 강의 실시를 확대해왔다.

이러한 국내 대학에서의 영어 강의는 지난 2000년대 초 처음 실시되어 200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Byun et al., 2011). 이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국제화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함께 영어 강의가 언론사 대학 평가 지표에 포함된 평가 준거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06년 정부자료에 따르면 200 여개 대학의 410,000개의 강의 중 2.2%에 해당하는 9,000개의 강의가 영어강의로 진행되었다. 또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응답한 190개의 학교 중 49%를 차지하는 94개교에서 학부과정에 영어강의를 개설하였으며 30%에 해당되는 58개교에서는 대학원과정에서 영어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최정윤·김미란, 2007). 당시 한국정부는 영어강의확대를 위해 대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영어강의에 대한 평가를 BK21과 같은 프로젝트 등과 연관시켜 2010년까지 영어강의 비율을 3.1%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MoEHRD, 2007; Byun et al., 2011에서 재인용).

이후 2011년 언론사의 영어강의 현황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영어강의비율이

확연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장원석 외, 2011). 전국 17개 주요대학의 영어강의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590개의 개설강좌 중 6,892개인 13.6%가 영어강의로 진행되고 있었다. 영어강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KAIST로 전체 514개 개설강의 중 443개 과목을 영어강의로 진행하여 그 비율은 84.2%에 달하며, 특히 전공은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POSTECH은 2011년 ‘캠퍼스 영어공용화’정책을 시작하였으며 영어강의 비율 역시 56.3%에 달해 KAIST의 뒤를 이었다. 한편, 강릉원주대의 경우 2,025개 강좌 중 100% 영어강의의 수업은 0개이며 수업의 일부만 영어를 사용하는 강의의 수도 8개인 0.4%의 비율밖에 되지 않아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교별로 편차는 있지만 불과 5년 전까지 영어강의가 매우 드물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학에의 영어강의 확대가 보편적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과 비교하여 지난 5년여 간 여러 주요 대학의 영어강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 강의의 영어화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KAIST를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와 같은 주요 사립대학들의 영어강의 비율은 30% 가까이 되고, 고려대학교는 35.7%,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2006년 5.4%에서 42.1%로 영어강의 비율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도 5.4%에서 11%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불과 5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영어강의 비율이 획기적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주요 대학 영어강의 비율: 2006년과 2011년

대학명	2006년	2011년
KAIST	21.43%	50%
POSTECH	8.10%	50%
서울대	5.38%	11.02%
연세대(서울)	10.71%	29.37%
성균관대	5.74%	28.03%
고려대(안암)	26.22%	35.72%
경희대	5.43%	42.10%
한양대	3.76%	30.83%
서강대	7.58%	21.39%
중앙대(서울)	5.81%	27.88%

출처: 중앙일보 대학평가 자료를 재구성함

이와 같이 영어강의가 확대된 것은 첫째, 여러 대학들이 교수와 학생에게 영어강의 개설 및 수강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대학교의 경우 2003년 이후 신규 임용되는 신임 교원부터 책임 시수인 6학점에 대해서는 영어강의 개설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2004년 입학생 이후부터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최소 다섯 과목 이상의 영어 강의를 이수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어 강의 의무화는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국내 주요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부분영어강의제도, 수업보조금 지급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는 신규채용 교수의 영어 강의 의무화와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성과관리제도에 영어전용 전공강좌 비율의 반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는 국제어수업 학부 및 전공의 경우 의무개설비율을 설정하고 교양기초영역 국제어 수업 의무화 과목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교수별 책임학점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대학과 비슷하게 성균관대학교도 수업 개발비를 지급하는 한편, 전공과목 국제어 수업 개설비율의 목표 달성을 MBO 평가에 반영하고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수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영어강의 정책의 확산에는 최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의 국내 대학평가에서 영어강의 비율이 국제화 부문의 평가지표에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국제화 부문 지표가 처음 도입될 당시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국제화 지표 다섯 항목 중 외국인 교수 비율,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과 함께 영어강좌 비율도 포함되어 평가가 시행되어 왔다. 다만 도입 당시 총 평가점수 중 20점을 차지하던 영어강의에 대한 점수가 2011년에는 15점, 2012년 지표에는 10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단순히 영어강좌의 비율로 점수를 부여하던 초기와 다르게 2010년에는 영어강좌 50%이상은 만점처리로, 2012년에는 상한선을 30%로 하향 조정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확대위주의 대학들의 영어강의 확대 정책에 대한 그 간의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가. 영어강의의 효과

1) 효과적 부분

영어강의정책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들은 교수 및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 강의의 효과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 중 다수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강의의 효과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검토 결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강의의 효과성은 학생들의 영어 수준의 차이, 전공 계열, 수강 동기, 학업성취도, 강의 규모 등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어강의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의 영어 수준 편차에 대해 지적한 선행연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강소연, 박혜선, 2004a; 박소연, 2008; 강순희 외, 2007; 황종배 외, 2011).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편차가 적을수록 영어강의의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좋은 영어강의는 이러한 편차를 어떻게 조정하였는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과대학 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강소연과 박혜선(2004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이 인식하는 본인의 영어실력과 영어강의 효과성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즉, 본인의 생활영어능력 및 전공영어능력을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학생들은 영어 강의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영어강의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영어강의의 효과성을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영어 강의의 효과로는 영어 실력의 향상, 진학 및 취직에의 도움 여부, 학습 성취 및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다. 또 영어 실력 항목은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단어 및 어휘 능력, 전공 영어에 대한 지식, 영어에 대한 자신감,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중대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진학 및 취직에의 도움 항목은 유학 준비, 취직 시험 대비, 학점 취득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학습 성취 및 만족도 측면은 수업참여 동기 향상,

교수와의 상호교류, 수업집중도, 교과목 흥미 증진, 학습 내용 이해 증진의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마찬가지로 박소연(2008)의 연구 결과, 생활영어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영어강의가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단어 및 어휘 능력, 전공 영어에 대한 지식과 같은 영어 실력 측면 및 교수와의 상호교류, 수업 집중도 향상, 교과목 흥미 증진, 학점 취득 등의 영역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전공영어능력이 높은 학생들도 이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교수와의 상호교류에선 영어강의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어강의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쓰기 능력, 학점 취득, 교과 흥미도, 수업 집중도, 읽기 능력, 말하기 능력의 순으로 영어강의의 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마찬가지로 사범대 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전공 영어 강의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강순희 외(2007)의 연구 결과, 자신의 영어 능력이 영어 강의를 수강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한 학생들일수록 영어 강의의 효과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이 영어강의의 효과를 인식하는 데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영어 읽기, 쓰기 능력의 경우 영어강의를 수강을 위한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보다 영어 강의의 효과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영어 강의 수강과 관련하여 스스로 영어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일수록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영어 강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황종배 외(2011)의 연구 또한 영문학과 전공 수업을 한국어 또는 영어 강의로 수강한 각각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어 능력 상위 학생들이 하위 학생들보다 전공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우월한 능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영어강의 집단과 한국어강의 집단을 구분하여 영어 능력에 따른 전공시험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영어 및 한국어 강의별 집단 간 구분은 유의미한 차이를 냉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강한 강의의 언어와 무관하게 영어 능력 상위 학생들의 전공 성적 또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영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수강한 결과 전공 성

적이 높은 것인지 또는 애초에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인가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의 차이 외에도 전공계열별 차이가 영어 강의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영수(2008)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 학생들 305명을 대상으로 영어강의의 투입, 과정, 결과 범주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이 중 영어강의의 효과는 결과 범주의 학습 성과 요인에 해당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영어 불안감 해소 측면에서는 모든 전공 계열에서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으나, 학습목표의 달성여부와 수업내용의 충분한 학습과 같은 요소에서는 공학계열이 인문사회 및 자연계열에 비해 영어강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 심영숙(2010)의 연구는 수강동기와 학업성취도가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강의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수강한 전공필수 과목들의 경우, 낮은 이해도와 수업 부담감을 이유로 영어강의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영어능력 향상 혹은 전공영어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영어강의를 수강한 경우 영어강의의 긍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은 교과목의 경우 교양과목인 점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학업성취도 또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강의의 효과성에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과목의 개념과 원리 이해 측면에서 영어강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했지만, 이러한 경향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학습 의욕, 학업에의 노력 자극, 영어 강의에 대한 부담감 완화 및 자신감 향상 측면에 있어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습자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학업성취도가 영어강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강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로는 강의 규모였다. 전지현(200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의 규모에 따라 영

어 강의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였다. 규모가 작은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경우 수강생이 많은 경우보다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수강생이 20명 이하인 경우 20명 이상인 경우보다 강의를 수강한 후 지식 습득이 더욱 증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학습의욕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강사의 국적과 같은 요인은 영어강의의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자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강의의 효과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의 차이, 전공계열별 차이, 수강 동기, 학업성취도, 강의 규모 등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은 본인의 영어실력이 뛰어나고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강의를 수강할수록 영어강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전공 계열 중 공학 계열에서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타 계열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강의 규모가 작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영어강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과 달리 박혜숙 외(2006)의 연구처럼 이와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한 문헌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동일교수가 동일강좌를 국어 및 영어로 진행한 경우의 3학기 동안의 강의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 규모(수강인원), 전공 계열, 학업성취도(강좌평균 성적)의 효과를 통제한 후 강의 언어에 따른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이 인식한 영어 강의의만족도는 위의 요소들을 통제한 후에도 한국어 강의에 대한 만족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는 학생 수가 적으며, 학생 특성과 같은 개인적 조건들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 및 수업관찰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어강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 저자들은 영어강의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어강의를 위한 적절한 교수법이 필요하고 원칙에 따라 한국어를 병행할 것과 자세한 강의 정보와 피드백 등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강순희 외, 2007; 송영수, 2008; 홍성연 외, 2008).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교수의 영어 구사 능력의 우수성은 중요하나, 그보다 교수법과 환경이 더 중요한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수자의 효능감을 높이고 수업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소연·박혜선, 2004). 이를 위해서는 학교는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민정, 2007).

2) 문제점 부분

영어강의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영어강의로 인한 문제점들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다. 오희정 외(2010)의 연구에서는 영어강의의 문제점을 크게 수업운영, 학생, 평가, 그리고 행정상의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강의의 전달 도구가 영어로 사용되는 영어강의의 특성상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교수들이 전공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 수준의 차이가 커 수업의 수준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영어 실력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수업 활동을 회피하는 학생들이 생기거나 수업의 분위기가 저하되는 점, 그리고 평가를 받을 때 영어쓰기 능력에 의해 학생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이처럼 영어라는 강의전달의 도구로 인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강소연 외, 2004; 김민정, 2007; 오희정 2010; 장나영 2011). 또 영어강의에서는 전공에 대한 능력보다는 영어실력으로 인해 학점에 영향을 받는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강소연 외(2004)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들의 46.6%나 영어강의 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동의하였다. 장나영(2011)의 연구에서는 영어 사용 때문에 영어강의가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영어강의에서 학생들은 질문을 하고 싶어도 문법적으로 틀릴 것을 우려하거나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눈치를 받는 점 등의 이유로 질문을 참게 되고 이는 수업에서의 토론과 같은 학문적 교류를 저지한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 잘 하는 학생과 영어를 못하는 학생의 양분화를 문제

점으로 지적하였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영어강의를 수강하며 어렵지 않게 높은 점수를 받거나 수업참여도도 높은 반면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영어로 인한 영어강의 수업 내 학생들의 계급화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박소연, 2008).

한편, 영어강의에 대한 문제점을 단위 대학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적 측면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김명환(2007)의 연구에서는 영어강의의 확대를 국제화의 확산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는데, 영어강의 정책을 학생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한국 대학들이 학문적 지식을 영미권에서 들여오면서 지식을 재생산하지 못하고 수입한 지식의 전파와 소비에 머물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나. 교수의 입장

지금까지 국내 대학에서의 영어강의정책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영어강의를 수강할 때 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반면 영어강의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주체가 되는 교수들의 입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대학이 좀 더 종합적으로 영어강의 정책의 효과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알아보는 데 참고 할만한 결과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영어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들의 요구 및 제안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영어강의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강의 정책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및 요구사항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교수들은 영어강의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영어강의정책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효과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교수들은 세계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이에 걸맞게 대학의 체질을 국제화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신소영 외, 2012; 정영철, 2009; Kim, 2011).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습자 요인 및 교수의 영어 능력, 전공 특성 등의 이유를 한계

점으로 제시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신소영 외, 2012; 오희정 외, 2010; 정영철, 2009).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 및 교수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과 한국어 보충수업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강소연·박혜선 2004a; 신소영 외, 2012; Kim, 2011).

위의 연구들은 영어강의정책에 대한 교수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 방안이 영어강의 수업 현장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결하는 데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결 방안들이 교수·학습적 측면을 중점으로 제안되어 단위 대학 또는 정부 차원에서 영어강의 정책의 계획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맹은경 외(2011)의 연구는 효과적인 대학 영어강의의 운영을 위한 교수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나아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맹은경 외(2011)는 교수 50명을 대상으로 영어강의의 성과, 영어강의 시 고려할 요소, 영어강의 적정 학생 수, 효과적인 영어강의 운영을 위한 지원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향후 영어강의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면 좋을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교수의 전공, 영어구사능력 정도 및 연령에 따라 의견 차이를 분석해서 교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면밀히 조사하고자 노력하였다. 실제로 연구 결과, 교수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영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영어강의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 외에도 교수의 전공 계열을 기준으로 결과를 제시한 점은 영어강의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학 전공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다. 영어강의의 ‘정책’적 측면

지금까지 영어강의정책에 대해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된 곳은 유럽이다. 2000년 초반부터 유럽 내 영어강의를 실시하는 고등교육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이 강의들 중 대부분은 석사과정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었다. 지역별로 구분했을 때 영어강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가들은 대부분 비영어권 국가들이었다(Ammon & McConnell, 2002; Maiworm & Wachter, 2002; Wachter &

Maiworm, 2008).

이와 관련한 유럽의 영어강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학들의 영어강의정책 집행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중 Maiworm와 Wachter (2002) 공동 저자들의 연구들은 2002년과 2008년경 두 번에 걸쳐 수행되어 유럽 내 고등교육기관들의 영어강의정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들이다(Maiworm & Wachter, 2002; Wachter & Maiworm, 2008).

2002년 연구는 유럽 19개 국가 소재 고등교육기관 1,558개를 대상으로 대학 기관의 유형, 규모, 역사에 따라 영어강의 도입 배경과 추진 전략을 분석하였다. 또한 재원 조달 방법, 영어 강의 질 보장 방법, 인증 방법 등의 정보까지도 수집하여 종합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Maiworm & Wachter, 2002). 이 2002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가 범위를 넘어 유럽 지역 차원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일수록 영어강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대부분 석사과정에서 프로그램차원으로 제공되었다. 즉, 영어만을 사용하는 전공 프로그램들은 석사과정에서 제공되었다. 이 기관들이 영어 사용 전공프로그램들을 개설한 주요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유럽 대학들의 자국인 학생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대학의 연구 기능을 유지해야 하면서 수요가 적은 학문분야를 지속하고자 했던 사회 배경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008년에 진행된 연구는 기존의 19개 국가에서 터키와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회원국을 포함한 27개 국가로 대상을 확대하여 2,218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영어강의를 분석하였다(Wachter & Maiworm, 2008).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어강의는 2002년과 유사하게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동·북유럽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제공되었다. 영어강의 정책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에도 자국인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에 수행된 연구와 달리 두드러진 점은 각 대학 기관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프로그램을 홍보한 방식이었다. 이렇다 할 만한 마케팅 방법이 없었던 2002년에 비하여, 2008년에는 약 70% 가량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상 살펴본 유럽 고등교육 기관들이 추진한 영어강의 정책들은 인증제와 같은 영어 강의 질 보장 기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조사 결과 70% 가량 되는 프로그램들이 국내 혹은 국제적 수준의 인증을 받았다 (Wachter & Maiworm, 2008). 또한 이들 기관들에서 시행하는 영어강의 정책은 그 외 학교 홍보 및 학생 유치와 같은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대학의 전략 수립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국내 영어강의와 상이한 점은 이들 기관에서는 교수 혹은 학생의 영어 능력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지 국가 언어 능력의 미달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영어강의 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어강의 정책의 필요성이나 영어강의정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다룬 반면 영어강의 정책 그 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영어강의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학생 혹은 교수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일부 논의하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영어강의 정책의 계획, 집행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효과 및 대응 방안을 도출한 연구는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Byun et al.(2011)의 연구는 한국 정부 및 국내 대학들의 영어 강의 정책의 운영 전략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강의정책의 효과성과 집행 시 문제점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대응 방안까지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초반 영어 강의 정책 도입 이후 고려대학교의 영어강의 비율이 2008년 기준 38%에 이르고, 외국인 교원의 수 또한 2002년 284명에서 2008년 기준 8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도 정책 도입 당시 40명에서 2008년 기준 580명으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 외에도 영어강의 정책은 고려대학교 재직 교수들의 국제학술전문지 게재 논문 수를 증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러한 눈에 띄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강의의 질 등 영어강의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에 참여한 교수 및 학생들은 비록 영어강의 정책 결과 영어실력이 다소 향상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공지식의 효과적인 전달 및 학습은 어렵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현재 전공계열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영어강의 정책의 운영 방식에도 불만을 보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어강의를 선택적으로 진행할 것과 운영 방식에 전공에 따른 차이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동 연구는 1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연구의 결과가 유사한 다른 대학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영어강의 개선방안

영어강의 정책을 연구한 대부분의 논문은 학생들의 만족도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결론 부분에서 짧게 언급된 정책적 개선방안들 역시 교수학습적 측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그치고 있었다. 정책개선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나 근거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한적으로나마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해결책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강의 예비 과정 운영(강소연, 박혜선, 2004a, 2004b; 김명환, 2007; 김민정, 2007; 박소연, 2008), 교수 학습 지원(심영숙, 2010; 오희정 외, 2010; 홍성연 외, 2008), 한국어 병행 사용과 한국어 강의 선수강(강순희 외, 2007; 박혜숙 외, 2006; 박혜숙, 2009), 그리고 자세한 강의 정보 제공, 수준별 반배치와 평가방식의 개선(강순희 외, 2007; 김명환, 2007; 오희정 외, 2010) 등이 있다.

위 언급된 개선 방안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강의 예비 과정의 운영은 가장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으로,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수강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을 보여준다. 제시된 영어강의 예비 과정의 예로는 영어 준비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의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와 같은 4대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개설할 것이 제안되었다(강소연, 박혜선, 2004a, 2004b; 김민정, 2007). 그 외 글쓰기 수업 또한 제안되었는데, 어휘와 문법과 같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

의 훈련이 아니라 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김명환, 2007; 박소연, 2008).

교수·학습 지원 또한 상당한 수의 선행연구들이 개선 방안으로 언급되었다. 교수·학습 지원은 다시 교수법 지원과 학습 전략 제공으로 구분되며, 교수법 지원으로는 교수법 워크숍, 교수 대상 1:1 원어민 영어 능력 코칭, 수업 컨설팅, 외국 석학 공개강좌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오희정 외, 2010; 홍성연 외, 2008). 학생들을 위한 학습 전략 지원 방안으로는 학습 클리닉 프로그램이 제안되었으며, 노트 정리 기술과 같은 실제적인 학습 방법 개선 방안 또한 언급되었다(심영숙, 2010).

한국어 사용 또한 영어 강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설명되었다. 영어강의가 100%로 진행될 경우 강의 내용에 대한 몰입과 이해가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어를 병용하거나 한국어로 된 보충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강순희 외, 2007). 뿐만 아니라 두 학기에 걸쳐 개설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강좌의 경우 한국어로 된 강의를 선수강하여 전공 영역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되었다(박혜숙 외, 2006; 박혜숙, 2009).

이외에도 교수자와 학습자 각각을 위한 영어 강의 매뉴얼 제공(오희정 외, 2010), 영어 능력 수준별 강의 개설(김명환, 2007)이 제안되었으며, 평가 방식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되었다. 강순희 외(2007)의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어 강의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강의의 평가 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영어 강의에서 평가는 전공 영역에서의 학습 성취도보다 자신의 영어 실력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이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은 영어강의 개선방안은 좀 더 제도적이고 체계적 정책개선방안으로 정리, 구체화하여 현실화해야 한다.

I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사립대학인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학교는 앞서 <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2011년 영어강의 비율이 각각 35.7%와 42.1%로 KAIST와 POSTECH 다음으로 가장 높은 영어강의 비율을 보인 학교들이다. 특히 경희대학교는 2006년 5.4%에서 5년 만에 8배 가까운 영어강의 비율의 증가율을 보였고, 고려대학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인 영어강의 확대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도에 이미 영어강의 비율이 26.2%로 <표 1>에 포함된 학교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해온 학교이다. 특히 201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국제화 부문에서 각각 전체 6위와 8위를 차지한 바, 이는 두 학교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경희대학교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00% 영어강의 수업이 아닌 부분 영어강의 수업의 비중도 큰 것이 특징적이며 단기간에 영어강의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부분 영어강의가 허용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영어강의 도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온 고려대학교와 여타모로 차이가 있어 연구책임자가 재직 중인 고려대학교와 함께 경희대학교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KAIST와 POSTECH과 같이 자연과학계열로 특수화된 대학보다는 인문사회계열을 포함한 종합대학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영어강의와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한 현상과 정책적 의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었다.

〈표 2〉 대학별 영어강의 개설 현황(2011년 1학기)

대학명	전체 개설강의 수 (전공교양교직 등)(A)	100% 영어강의 수업 수 (B)	일부 영어강의 수업 수(C)	영어강의 비율(%) ((B+C)/A)X 100
KAIST	514	433	0	84.24
강릉원주대	2,025	0	8	0.40
경북대	4,067	399	1	9.84
부산대	4,626	239	0	5.17
서울대	3,107	343	0	11.04
전북대	3,477	389	0	11.19
제주대	2,469	35	11	1.86
충남대	3,614	72	5	2.13
충북대	2,620	63	41	3.97
POSTECH	327	184	0	56.27
경희대	4,265	614	559	27.50
고려대	3,055	775	0	25.37
국민대	2,830	228	0	8.06
인하대	2,732	484	26	18.67
중앙대	4,118	989	0	24.02
한양대	2,859	389	0	13.61
홍익대	3,887	597	8	15.56
합계	50,590	6,233	659	13.62

주: 표 1과 동일 대학의 경우에도 영어강의 비율이 다른 부분은 조사 방법이나 차이에
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출처: 장원석 외(2011, p.136)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는 4장과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두 학교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2012년 기준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규모 및 국제화 정도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설립년도	1905	1949
학생 수	20,226	25,375
교수 인원	1,372	1,418
외국인 교원	91	133
외국인 유학생	1,799	3,045
영어강의 비율	30% 이상	30% 이상
중앙일보 대학순위	6위	8위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226–250th	351–400th

주: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임교원만 포함. (출처: 대학알리미)

연구대상은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근무 중인 교수 17명과 재학생 24명을 포함하여 총 41명을 대상으로 개별 질적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중 외국인 교원 3명과 외국인 유학생 4명도 포함되었다. 면접 대상자는 인문, 사회, 경영, 국제, 이공, 자연계열 등 다양한 전공 소속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교수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면접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4>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인터뷰 참여자: 교수

ID	본교	전공계열	성별	외국인 교원 여부	최종학위 취득 국가
1	고려대학교	인문	남	-	해외
2	고려대학교	사회	여	-	해외
3	고려대학교	사회	여	-	해외
4	고려대학교	사회	남	-	해외
5	고려대학교	경영	남	-	해외
6	고려대학교	국제	남	-	해외
7	고려대학교	이공	남	-	해외
8	고려대학교	자연	남	-	국내
9	고려대학교	사회	남	O	해외
10	경희대학교	인문	여	-	해외
11	경희대학교	사회	여	-	해외
12	경희대학교	사회	남	-	해외
13	경희대학교	이공	남	-	국내
14	경희대학교	이공	남	-	해외
15	경희대학교	자연	남	-	국내
16	경희대학교	사회	남	O	해외
17	경희대학교	자연	남	O	해외

〈표 5〉 인터뷰 참여자: 학생

ID	본교	전공 계열	성별	외국인 유학생 여부	ID	본교	전공 계열	성별	외국인 유학생 여부
1	고려대학교	인문	여	-	13	경희대학교	인문	남	-
2	고려대학교	인문	남	-	14	경희대학교	인문	남	-
3	고려대학교	사회	여	-	15	경희대학교	사회	여	
4	고려대학교	사회	남	-	16	경희대학교	사회	남	-
5	고려대학교	이공	남	-	17	경희대학교	자연	여	-
6	고려대학교	이공	남	-	18	경희대학교	자연	남	-
7	고려대학교	자연	여	-	19	경희대학교	자연	여	-
8	고려대학교	자연	남	-	20	경희대학교	자연	여	-
9	고려대학교	경영	여	-	21	경희대학교	경영	여	-
10	고려대학교	경영	남	-	22	경희대학교	경영	여	
11	고려대학교	국제	여	0	23	경희대학교	경영	여	0
12	고려대학교	기계 공학	남	0	24	경희대학교	경영	여	0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개별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대상자는 영어강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인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영어강의 담당 교수자와 학생들이었다. 면담질문은 문헌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개발하였고, 영어강의 정책의 목적, 목표 달성을 정도, 영어강의의 장점 및 어려움, 영어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질문하였다.

면접 자료는 학교별로 면접질문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분류된 영어강의 정책 및 제도적 측면, 수업의 효과 및 형평성 측면, 그리고 영어강의 개선점 등의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공계열 및 영어실력에 따른 영어강의 경험과 영어강의 정책에 대한 의견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면접자료를 학교별로 분석한 연구자들은 분석에 사용한 코딩과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두 학교의 결과를 비교,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어강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영어강의 정책의 목적, 정책형성 및 시행방법에 대한 비판적 관점, 영어강의 참여의 동기, 효과성 및 형평성 등에 대한 주제를 논의한 후, 영어강의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V. 영어강의 정책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고려대학교 사례

1. 사례대학의 특징 및 영어강의 정책

가. 개관

고려대학교는 2012년 현재 20,226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1,253명의 전임교원이 재직 중인 4년제 사립대학이다. 인문사회계열의 비율은 전체학생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과학은 16%, 공학계열 재학생은 28%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94.8%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5.1명이다. 어학연수생을 제외한 2012년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629명으로 2009년 273명, 2010년 347명, 2011년 47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2012년 현재 430명의 교환학생이 2012년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수학 중이다. 외국인 전임교원은 91명이며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출신 교수가 70명으로 총 외국인 전임교원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대학의 국제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2000년대 초부터 시행해 왔다.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평가 지표 중 국제화 부문의 항목에 비추어 고려대의 영어강의 및 국제화 정책에 따른 현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국인 학생 수는 2009년 273명에서 2012년 629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교환학생의 수는 2009년 261명에서 2012년 430명으로 증가하였다(<표 6> 참조). 외국인 전임교원 수는 2009년 109명이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2년에도 91명이 현재 임용되어 있어 꾸준한 외국인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또한, 2002년 10%였던 영어강의의 비율은 2012년 30%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2년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내 10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평가 중 국제화 부문

의 영어강좌비율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표 6〉 외국인 학생 현황

	외국인학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합계
2009	273	678	261	28	0	1240
2010	347	705	349	41	0	1442
2011	470	762	403	69	0	1704
2012	629	656	430	84	0	1799

출처: 대학알리미

〈표 7〉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2009	72	8	28	1	0	109
2010	65	8	29	1	0	103
2011	63	6	29	1	0	99
2012	57	6	27	1	0	91

출처: 대학알리미

나. 영어강의정책

고려대학교는 2000년대 초부터 영어강의정책을 실행해온 바 있다. 2000년 9월, 대학본부는 모든 학과가 최소 한 개의 영어강의를 개설할 것과 모든 학생들이 다섯 과목 이상의 영어강의를 수강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영어강의정책 초기에는 영어강의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으나, 신임교원 임용 계약 시 영어강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며 인센티브는 지급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임교원 채용 시 영어강의 가능유무를 신임교원 임용규정 시행세칙에 포함하였으며, ‘외국어강의에 관한 임용규정 항목에는 1) 책 임수업시간을 초과하는 강의를 포함하여 모든 강의(특수대학원 강의는 제외)를 영어(또는 기타 외국어)로 강의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의 교육경력 또는 강의 평가 자료가 없는 경우 학교가 마련한 영어(또는 기타 외국어) 가의 인증절차를

계약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고려대학교의 영어강의 정책은 여러 번의 개혁을 거쳐 2009년 9월, 지금 형태의 영어강의 정책을 갖추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영어강의정책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2003년 8월 이후로 임용된 교원은 모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재임용 후에는 학부 1과목을 포함한 책임시수만 영어로 강의).
- 2) 2004년 이후 입학한 학생들은 영어강의 다섯 강좌 수강을 졸업요건으로 한다(전공에 따라 최소 영강 이수과목수를 상향조정한 곳도 있음).
- 3) 모든 전공은 최소 한 과목 이상의 영어강의를 개설해야 한다.

한편, 학생의 경우 학칙에 영어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졸업과 관련한 항목에 졸업요건은 해당 단과 대학과 학부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정할 것이 명시되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단과대학이 영어강의 다섯 과목 이상 수강을 졸업요건으로 삼고 있다.

2. 교수

가. 정책 및 제도 측면

1) 영어강의의 필요성 및 성과

영어강의의 필요성

영어강의의 필요성에 대해 교수들은 서양에서 유래된 일부 학문의 특성,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의 위상,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이유로 영어강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이공계 및 사회과학 분야의 분과학문들은 서양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으며, 한 교수가 “저희 같은 경우 전문용어들이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라고 이야기 하듯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통역, 번역과 같은 부

차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어 오히려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수들은 또한 한국 사회가 더욱 국제화됨에 따라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으며, 외부와 소통하는데 영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 역량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Well, it's a globalized era, so you need to speak a language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You need to speak some common language or some other language that can be used in that international situation.

English is supposed to know that it is the language of science, the language of journals, the language of literature. and lots of things, politics, international things to open the door to global or international life.

그 밖에 교수들은 최근 국내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정부의 재정 지원 및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NURI 사업(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들을 거론하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강의를 통해 정부가 요구하는 대학의 국제화 평가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But you know, government funding programs, there is a lot of the evaluations, in the form of the process for granting of the government money to the university. Those kinds of the government funding programs, criteria included in those kinds of funding programs,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s usually regarded as important aspect.

도입 목적 및 성과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영어강의를 가르치고 있는 인터뷰 참여 교수들은 고려대학교가 영어강의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1) 대학의 국제화, (2) 대학 랭킹 및 평가 지표 개선,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4) 졸업생의 취직, 그리고 (5) 학생 영어실력의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그 중 첫 번째로 대학의 국제화는 영어강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으로서 현재 이를 위한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일단 궁정적으로 생각하면 학교 경쟁력이나 국제화를 위해서 필요 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잘 하고 있고.

영어강의 정책을 통한 대학의 국제화는 학교가 가진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고려대학교에 고착된 민족 이미지를 쇄신하고 글로벌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여겨졌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실제로 학교 이미지 변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이미지 쇄신의 차원도 있었던 거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학교 교정 전체에 조경 사업이 크게 되면서 동시에 영어 강의도 많이 하면서, 이러니까 외부에서 제가 다른 분들을 만나면, 고대 이미지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외국인 교수들의 경우 국제화의 대상을 학생 개인으로 보고, 이들이 한국의 경계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영어 실력, 국제적인 경험과 같은 경쟁력을 겸비하는데 영어강의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It is to be a citizen not just of Korea, but the citizen of the world.

The purpose is to ready korea university graduates for global competition, for global experience and English.

두 번째로 교수들은 대학 및 구성원의 국제화 외에도 대학의 랭킹을 높이고 평가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을 영어강의 정책의 또 다른 목적으로 간주하였다.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과 영어강의의 비율은 외부에서 대학의 국제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대학이 매우 적극적으로 영어 강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영어강의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화 지표에 있어서도 고려대학 교가 좋은 점수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경영대 인증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은 평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잘 받았고, 그런 점에서 는 뭐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죠.

중앙일보, 조선일보, QS 이런 데 평가하는 데 영강 비율이 들어가니까. 그거 도움이 될 거고.

There is a lot of the external evaluation closely related to the prestigious and ranking and other things.

세 번째로 교환학생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도 영어강의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지적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는 단순히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인하기 위해서도 영어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좀 더 현실적인 걸로 얘기하면 저희 같은 경우 공대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좀 있는데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원 외로 잡히기 때

문에 등록금이나 이런 면에서 financial이 굉장히 큰 이득이 주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영어 강의를 많이 한다고 하면 [외국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어로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 대학을 선택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영어로 강의를 들어야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 교수는 한국에 유학을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아시아권이며, 학문의 학습과 더불어 한국어 습득을 기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영어강의 정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몇몇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기는 한국을 배우려고 한국어로 학문을 배우려고 왔는데 다 영어로 하느냐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나 대학의 입장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는데 … 고민할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영강을 해야 할지.

이 외에도 국내 대학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양적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강의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이들이 우수한 학생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고대 같은 경우에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은 이건 고대의 특별한 문제이지만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의 퀄리티가 고려대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이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영어강의 수업을 주도하게 되지만 과연 이들이 우수한 학생이고 좋은 수업을 하는 데 기여하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네 번째로 영어강의 정책이 졸업생의 사회 진출을 대비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더욱 다지기 위해 추진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트랜스크립 [성적 표]에 영강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그러나 실제로 기업에 취직을 하는데 영어 실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교수들은 기업에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직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 실력이 높을 경우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실력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한다면 기업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아무래도 영어도 잘한다 그러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must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option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영어에 대해서는 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 외 교수들은 이미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영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영어가 취직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요샌 영어 잘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꼭 영어 때문에 뭐 꼭 잡 구하는 건 없죠 사실은

다섯 번째로 교수들이 생각하는 영어강의 정책 추진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학생의 영어실력 향상이었다. 영어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영어 표현과 기술들을 익히고 활용하며 영어실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실력 면에서 도움을 받는 쪽은 교수인 것 같았다.

음.. 일단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어를 너무 안 쓰면 영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영어강의를 하는 것이 영어 실력에도 교수님들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영어를 잊어먹는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질문 안하니까 편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강의나 이런 걸 준비하는 material을 외국 나가서 세미나 할 때 외국사람 앞에서 영어로 해야 하니까 준비를 두 번 안 해도 되니까 좋고.

그러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정책이 교수들의 개인적 능력 향상에 부적절하게 이용된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다.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태도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런 분들은 아마 영어 연습을 한다, 스피킹 기회가 있다고. 얼마나 천박한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꼭 어떤 석상에 가서 외국인 있으면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막 추한 이런 걸 많이 보죠.

마지막으로 일부 교수들은 지금까지 영어강의 정책의 목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으며 모호한 것들로 구성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학교가 영어강의를 통해 학생 및 교수들이 갖추기를 기대하는 역량과 학교의 모습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Goal이 명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표라는, 목표와 이상은 되게 다른 거잖아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역량 있는.. 뭐 그거겠지만, 목표라는 건 예를 들어 적어도 몇 퍼센트 이상의 학생들이 뭐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아니면 뭐 minimum 이 정도는 다 갖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라든가 뭐 암튼, 기한과 역량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 영강 제도가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은 일견 들고요.

2) 영어강의 시행방식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고려대학교의 영어강의 시행방식상의 문제점으로 정책의 일률적 적용을 지적하였다. 특히 문과대학에서와 같이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영어강의 비율을 채우기 위하여 영어 강의가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책이 시행되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정작 학생을 위한 교육과 같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과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너무 일괄적이다라는, 학문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비판을 듣고 있는 것 같고, 그 너무 숫자 중심이 아니냐, 라는..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모든 교수 가 영강을 하면 좋겠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온 장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온 또 분명히 많은.. 비판도 있어왔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학교가 그동안 10년 정도 했으면 뭔가 좀 revision을 하고 그럴 데이터를 모으셨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또 되게 수동적인, 뭔가 이렇게 내려, 그.. 뭐죠.. 뭔가 더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데 더 약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좀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 싶기도 하고.

또한 영어강의의 필요성과 일부 학과에서 적용하는 것은 찬성하여도 무조건적 영어강의의 양적 팽창은 고려대학교라는 학교의 정체성이나 이미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처럼 50%다 무슨 아니면 앞으로 3분의 2의 목적을 갖고 목표를 두고 하는 거는 미친 짓이죠. 아니면 아예 100% 영어 대학교를 만들지요 일본처럼. 그렇지 않고는 ‘민족 고대’ 하면서 무슨 민족을 빼야 돼요 이제. ‘영어 고대’ 하죠 앞으로 그죠? 그래서 국제학부나 아니면 특히 영어가 좀 필요한 경영대 정도는 좀 높일 필요가 있겠지만 타과에까지 영어를 다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언어 체계가 있으면서도 지금 회사들에서 영어로 인터뷰 하는 것도 웃긴 일이구요. 이것도 문제화 안 되는 것도 웃긴 겁니다. 사회가 얼마나 영어에 오염이 되어 버렸으면 그죠?

이처럼 전공분야에 따른 영어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교수들마다 상이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대다수는 영어강의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수긍하였다. 그러나 전공에 따른 영어강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 등 교수들은 정책 적용의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고려대학교 영어강의 정책의 성급하고 일률적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영강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영어강의에 맞는 제도가 필요한데, 고대에는 걸맞은 제도가 없고 제도 없이 시행하는 영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를 위해서는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가 없고, 현황파악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제도가 더해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필요한 분야를 특정하지도 않고, 신임교수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직 교수가 다 퇴임하고 신임교수들로만 쭉 채워지면 나중에는 모

두 영강으로 채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파악이 없이 무조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시키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국제화, 세계화’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대가 글로벌화를 선도해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장원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제도를 위해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러한 일률적 적용을 정책 시행 초기에 불가피했던 단계로 인식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제는 영어강의 정책이 이미 오랜 기간 시행되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 정책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던 방법보다는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처음에 어윤대 총장님께서 영강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예외없이 모두 영강으로 시작을 하신 거는 제가 보기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안 하면 시작을 할 수 없고 뭐든지 처음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해서 그나마 영강 비율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생겼으니 이제 좀 내실을 다져 가지고 참되게 알차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영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게 좀 그래서 연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유지하되 운영의 미를 잘 살려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3) 동기, 보상과 유인

영어강의정책이 진행되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왔고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의 실질적 수행자인 교수들의 동기를 분석해보았다. 고려대학교에서는 2000년대 초 영어강의정책이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2003년 이후 임용된 교수에게는 영어강의를 의무화하였다.

제가 재임용 통과할 때 까지는 모든 강의가 영어고, 그 다음에 재임용 끝나면 한 학기에 6학점 까지는 영어 강의를 해야된다 뭐 이렇게 나와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어강의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정책 도입 초반에는 교수들에게 영어강의 개발비 명목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인센티브 지급이 사라지며 교수들의 자발적 영어강의 참여가 약화되었다. 다시 말해 학교 측이 영어강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실시하였을 뿐 당사자들이 충분한 동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영강 개발비라는 그런 incentive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는 영강 수당이라는 incentive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어떤 영강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incentive가 있으니까 그래도 교수님들이 좀 하자 근데 갑자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있다가 없어지니까 좀 이렇게 영강을 하시는 게 의욕이 좀 꺾인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영어강의를 강제 받지 않는 분들은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지니까 하지 않고 있어요. 이는 교육자라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 영강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거죠. 단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영강을 진행할 능력도 되니까 했던 것이고, 이를 통해서 보면 교수들

이 모두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언어 구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있지만 그 분들도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많이 겪다보니, 교육적 효과나 교수학습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요.

정책의 성공적 적용을 위해선 정책수행자들의 추진 동기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한다. 그러나 일률적인 정책 적용과 성급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교수들의 영어강의 진행 동기가 부족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정책 시행 상 여러 문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나. 수업 측면

1) 효과성

교수들은 실제 영어강의를 진행할 때 (1) 지식 전달의 한계, (2) 수업 외적 이야기와 같은 풍부한 수업 내용 전달의 어려움, (3) 교수의 연구역량 저하 등의 면에서 영어강의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중 첫 번째로 지식 전달의 한계는 교수의 영어 실력이 강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에 부족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고 쉬운 내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심화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의사전달, 의사표현 거기서 약간의 어떤 디스카운트가 생기니까, 100이라는 knowledge를 이렇게 전달을 하려다 80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되는, 본인의 그런 어떤 영어표현 능력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학생들에서도 받아들이는 측면의 디스카운트가 생기니까 그런 양쪽의 디스카운트에서 좀 지식 전달의 차원에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영강을 준비할 때는 가장 쉬운 내용으로 최소한의 것만 전달하게 되고, 내용을 취사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또 교수가 전달하는

것도 어렵지만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어려운 내용은 아예 생략해버리고, 심화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의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교육 현장의 붕괴”라고 개탄하였다.

모든 과목이 학생들이 우선 알아듣는 언어로 또 강사 교수들도 자기가 편한 언어로 강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해야지 지금처럼 영어를 버벅대는 교수들이 억지로 강의하면서 전달 사항도,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어가 떨리다 보니까 contents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학생들도 본인들도 영어가 안 될 때 영어가 안 되는 교수들한테서 전달받았을 때 이거는 교육 현장의 붕괴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록 영미권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그 나라에서 수 년 이상 체류한 교수들이라 할지라도 심도 깊은 지식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데에는 영어 실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최소한 4년에서 7 8년 정도는 외국에서 영어로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영어죠. 그 수준이 어떻다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아주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고 복잡한 컨셉이나 이런 거를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실력은 아닌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몇몇 교수들은 영어강의를 가르치면 강의에 대한 교수의 직무태만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에 있다고 경고하였다. 표현의 한계라는 영어강의의 특성 때문에 강의를 기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교수 입장에선 쉬워요. … 그냥 읽거나 영어로 얘기하면 되요. 그럼 애들 질문 안하고 OK that's fine 이러고 영어로 해버리니까.

그럼 뭐 수업 시간에 아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죠.

또 영어강의를 하면 수업 중 교수가 **수업 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수업 외 내용을 이야기하며 주의를 환기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을 가르칠 때 배경 지식을 함께 이야기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돋고 더 잘 집중하도록 할 수도 있다. 특히 고차원적 개념을 다룰 시에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유의미한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강의에서는 교수가 영어로 표현하거나 학생이 영어로 이해하는 정도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유연한 강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아쉬워하였다.

국강을 한다면 좀 더 다양한 사례도 이야기하고 좀 engaging한 수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국강을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넓어지는데, 영강에서도 시도는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그런 게 걸끄러운 때도 있고...

사례를 예를 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없는 뭐 제가 기억나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대담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해주고 싶은데 그걸 ppt에 넣을 수는 없는 게, 왜냐면 그것도 비밀보장이 되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말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게 기록에 남기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하면 애들이 무슨 얘기일까.. 따라오다가 못 따라오다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의 특성상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농담이나 애들 잠을 깨울 수 있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도 영어가 짧아서 못 할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영어강의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듣는 경우가 많아 수업 외적으로 한국 사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관심이 없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할까 우려되어 피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교수의 입장에서 영어강의가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영어강의에 많은 시간과 역량을 소모하여 교수의 **연구역량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국어강의에 비해 영어강의는 준비하는 과정의 노력이 배가 되기 때문에 단과대학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연구 실적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강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연구역량을 침해한 점인데, 평소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영강 준비가 힘들다 보니 현재는 겨우 최소 업적 기준을 채우는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언어 능력을 계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가면 저는 아닌데 일부 교수님들 보면 [논문] 이거 보시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힘드시기 때문에 과에서 요구하는 논문을 내기도 힘들다고요.

한편, 영어강의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어실력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교수들도 있었다. 대학의 국제화라는 거시적인 목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수들의 영어실력 유지 및 향상 또한 영어강의 정책의 긍정적 결과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2) 형평성

영어강의는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초래했지만, 영어 실력이 좋은 교수와 학생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영어강의 다섯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졸업이수 요건이다. 따라서 영어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영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생들과는 반대로 영

어강의를 통해 높은 학점을 수월하게 받기도 하였다. 영어강의는 다른 강의와 달리 학생 수와 관계없이 절대평가로 학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는 여러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교수들은 이러한 현상을 학생들의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영어 잘 하는 애들한테는 도움이 되죠. 왜냐면 편하게 학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어렵고 피해가 되는거죠.

한편, 절대평가는 혜택을 통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학생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수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다. 즉, 영어강의는 절대평가는 제도로 인해 최고 학점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높은 학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학점 좀 잘 주시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잘 주신다는 게 다 A를 준다는 게 아니라 최저학점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C나 D보다는 B+ 위에서 이렇게 좀 많이 [성적평가를] 하시다 보면, 학생들이 그냥 B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있죠.

또한 영어는 단지 강의의 전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실력이 강의 이해도와 성적에 직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이나 조기유학을 경험한 학생들의 영어실력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기 마련이고, 이러한 점이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들의 의견 중 흥미로운 것은 바로 한국 사회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한 교수는 영어강의 정책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에 의한 왜곡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한국 사회를 선도하는 엘

리트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회 체제를 재생산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영어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와 대학에서 영어 실력이 뛰어난 인재를 추앙하는 문화가 조성되었고, 고려대학교는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영어강의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특히 미국에 엘리트 자식들이 워낙 거기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수 자녀들 아니면 정부 기관의 자녀들, 고위급 자녀들 그리고 뭐 private sector의 사람들도 자녀들이 외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들어오니까. 결국 이 자녀들이 입학하기 좋게 글로벌 전형이니 뭐니 다 해놨고 장치가 결국은 이런 게 사회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엘리트들이 정해놓은 거에요 … 결국 그 수혜자들은 엘리트 자식들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다 영어위주고 …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다 외국에서 영어 위주로 공부한 자식들을 둔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고대도 휩쓸려가지고 영어만 잘 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그게 반영된 캠퍼스가 고대에요 특히.

영어 강의 열풍은 다분히 엘리트가 조작한 거에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얼빠지고 있는데 추가로 영어라는 몬스터가 나타난거죠. 세계화라는 바람이 부는거죠.

3) 영어강의의 수업효과를 저해하는 요인

교수들이 보았을 때 영어강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들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었다. 다음의 교수는 경영대학과 같이 영어강의를 특히 강조하는 학과의 신입생들도 고려대학교가 영어강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점이 의외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영어강의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영어강의를 수강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영어강의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1학년 신입생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고대가 뭐 고대 경영과 연대 경영을 사람들이 라이벌 학교로 생각을 하는데, 고대 경영이 이렇게 영강이 많은 걸 알았느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학생들이.. 모르고 그냥 선호도라든지 접수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그냥 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또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영어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키우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영어강의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 없이 영어강의를 수강하다보니 영어강의를 잘 따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유학을 가면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적응기간이 필요한 게, 어학과 수업은 또 다른 면이 있어서 원래 어학연수를 좀 하고 수업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간의 영어강의 실력 편차 또한 영어강의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영어강의를 시행 초기부터 가르친 교수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낮은 학번들이 더 영어에 수월하게 하는 것 같아요”라고 어린 학생들이 영어를 더 잘하고 영어강의를 잘 따라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되었어도 도농간의 격차, 일반고 및 특목고 등 학생들의 배경 변인에 따른 영어실력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농 간의 격차라든지 뭐 외고와 비외고 그런 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영어강의정책이 자칫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을 차별받게끔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마치 부가 세습 되는 것처럼 교육의 기회와 결과도 세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계속 좀 뭐랄까, 부가 이렇게 세습되는 거랑 비슷하게 그런 것들도 되게 세습이 많이 되는데, 영어를 잘 하는 애들은 보면 대부분 어릴 때 외국에 갔다 왔거나 특목고이거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fair한 ground에서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는 게 하나의 가르쳐야 하는 어떤,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항목 중 하나인건 분명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로 인해서 어떤.. 경주를 한다든가 할 때 시작점 자체에 이렇게 차이가 놓아지면.. 그게 키워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계속 애네들은 marginalize하는 게 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가장 많이 드는 게 제 수업이.. 아무래도 교환학생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60명 수업에 10명이 교환학생이거든요. 그러면 교환학생이 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전공 특성에 따라 영어강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전공 특성에 따라 영어강의 정책이 차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였지만, 어떠한 전공이 영어강의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리 했다. 일부 교수들은 이공계 분야의 강의들이 도식과 수식들로 주로 설명되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하기에 수월하지 않느냐고 보았지만, 실제 이공계 전공 교수들은 학문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거론하며 영어강의가 녹록치 않다고 하였다.

저는 제 생각에는 수학을 많이 쓰는 과목이, 농담 삼아서도 얘길

많이 하는데, 수학의 equation이나 뭐 그런 거를 많이 쓰는 거야말로 영강을 하기가 쉽죠. …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런거는 별로 말이 필요 없잖아요. 경제학 같은 것도 마찬가진데, 경제학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말로 많이 설명할 여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에서 영강을 하기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경영학 교수 면담 내용].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정신세계를 논하는데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뭐 반면에 자연계에서도 양자역학에 슈뢰딩거의 equation의 중요한 개념을 영어로 하는 거와 한국어로 하는 것은 다르죠[물리학과 교수 면담 내용].

경영학 전공 교수 또한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경영학도 전공 특성상 영어 강의가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경영학은 사례연구가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영어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교수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과목이어서 상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이 요구되는데 영어강의는 한국어 강의에 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경영대는 사실 [영어로 강의하기가] 쉽지 않죠. 말을 많이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말을 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목이죠. 대부분. 그러다 보면은 영강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심리학쪽에서도 상담 전공 교수들은 학법과 언어 표현이 중요한 상담 전공의 특성 상 강의에서 한국어로 진행된 사례를 영어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실습이 중요한 상담 분야의 커리큘럼 상 실제 상담 기법 모델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이 때 내담자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저희가 실습 부분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initial interview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영어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실제 그 친구들은 한국 상황에서 한국인 내담자에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 상담은 한국말로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나? 그래서 과목 특성상 약간 한국말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문학 전공 교수들은 대부분 영어강의 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인문학은 깊이 있는 토론과 사유가 필요한 학문이며, 그 안에서도 다양한 전공으로 분화된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책을 강제한 것에 대해 반감을 표하였다.

문과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일괄적이다라는, 학문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비판을 듣고 있는 것 같고

인문학은 학문의 표준화가 되기에 어려운 학문인데, 각 분야의 특수성이 강해서 영어와 같은 표준잣대로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에 응답한 일부 외국인 교수들도 한국 교수들과 유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 고려대학교의 영어강의정책이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는 학교 측이 전공의 특성과 무관하게 영어강의 정책을 강제로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 효과적 영어강의를 위한 개선방안

영어강의정책의 문제점에 이어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교수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영어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영어강의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어야 효율적인 영어강의를 진행하고 수혜자인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너무 지금은 현재는 경영대 같은 경우도 영어강의가 너무 좀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느 정도의 threshold를 넘으면 그 때부터는 좀 국강을 더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외국 학교에서 살다온 사람.. 뭐 영어 능력을 다 평가해가지고 뭐 그렇게 assign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되도록 교수님들한테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좀 더 부여해 주는.. 예를 들면은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영강, 다른 과목은 국강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교수님들에 따라서 두 과목 다 영강을 하시길 원하시면 영강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도 영어강의의 부담을 덜어주고 졸업요건의 완화를 고려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로는 영어강의 수강의 강제성이 학생의 학습 동기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너무 영어강의에 대한 부담을 아주 많이 가지지 않도록, 졸업요건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영어강의를 전달하는 사람이나 영어강의를 듣는 사람이나 motivation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강압적으로 영어강의는 해야 되고, 또 강압적으로 영어강의를 들어야 되고, 졸업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들

을 수는 없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강의의 만족도도 떨어질 거고.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될 것 같고.

교수들 간에도 영어실력의 차가 존재한다. 영어강의의 효과성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교수들의 영어실력에 따라 영어강의의 효율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강의정책 측면에서도 이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이 신임교원 모두가 영어강의를 가르치도록 의무화하였다면 앞으로는 외국인이나 영어에 능숙한 한국인 교수 등 영어강의 전담 교원을 선정하여 영어강의를 수행하도록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피력되었다.

아니면 이제 점점 외국인 교수들도 뽑고 싶어 하니까 아예 영어가 되는 전담 교원들을 뽑아서 그런 분들한테 영강을 시키는. 저희 과만 해도 지금 몇 분 계시거든요. 영국인도 있고 하니까. 잘 운영을 하면 순기능이 더 발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는 좀 영강을 위한 영강이 많은 것 같고, 많은 친구들도 중앙일보 [대학순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죠.

정말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이라면 제가 얘기한대로 차라리 미국인, 외국인, 영국인들 데려다가 수업 때 영어는 이렇게 해야되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보고.

또한 교수들은 한국어강의와 영어강의를 동시에 개설하여 분반함으로써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내놓았다.

그러니까 영강을 살려야 된다는 사실은 동의하는데 영강이 살려면, 예를 들면 분반을 여러 개를 주면 또 하니까. 그 중에 하나는 영강을 하고, 영어로 듣고 싶은 사람은 영어로 듣고. 나머지는 한글로

한다든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형태의 제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분반을 해서 뭐 영어 강의와 국강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좀 그런 형태도 다 그럴 순 없겠지만, 고려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울러 이와 비슷하게 학생들의 영어실력에 따른 수준별 영어강의와 분반 개설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 전공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이공 계열의 경우 저학년에 수강하는 전공 기초과목은 한국어로 수강해야 전공 관련 기초지식을 공고히 할 수 있으므로 학년별로 차별화된 영어강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부 때 진짜 중요한 전공 지식은 한글로. 특히 저학년일수록, 1,2학년 정도는 저학년일수록 한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말은 교양인데 엔지니어링 교양이라서요. 전공이랑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교양 필수인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라서 그런건데 그것조차 영어로 하게 되어 있으니 모든 공학의 근간이 되는 그런 과목인데 많이 자요. 그 다음에 4년 내내 해매죠. 그렇습니다.

또 이공계열의 경우 대학에서 전공 심화과정의 영어강의를 듣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미국 중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로 된 수학과 과학 수업 자료를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전공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공계열에서도 문과 계열의 방식으로 영어강의를 접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쉬운 설명을 해도, 어린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써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아주 딱딱한 단어를 써서 얘기한다던지, 아주 고등적인 단어만 알고 있지 그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각삼각형의 빗변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건 모른다고요. 교수들 시험을 쳐도 팔십 퍼센트 이상 모를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학생이나 그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언어적인 소통 능력이 부족한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거를 빼꿔줘야할텐데,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모델 강의들이, 외국인을 불러 오고, 우수한 중고등학교 교사를 불러 오건, 연중 고려대학교 클래스 안에 평생교육원이나... 그걸 백 퍼센트 공개를 하면, 요새는 이걸[스마트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금방금방 습득할 수 있는 초보적인 수준의 영어 능력이 빨리 배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서포트는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따지고 보면 어렸을 때 수학이나 과학 교육에 대한 모든 교육에 대한 정보들이 영어권화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문과적인 지식만 평가를 해왔거든요 영어 시험이 평가되는데.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쉬운 단어들인데 그게 다 빠져있어요. 그걸 채워 넣을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그 단어를 단어집으로 정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중고등학교 클래스를 압축적으로 쭉 한 번 들으면 되요. 그러면 한 순간에 한 번 들으면 다, 내용은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학점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개되어서 학생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접해서, 물리화학생물지학 다양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뭐 영어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순전히 영어로 표현되는 것을 애들이 티비 드라마를 보듯이 해 가지고, 그러면 순간순간 놀면서도 습득이 다 될 테니까, 내용은 아

는 거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수업을 듣게 되면, 듣는 학생들은 거의 99%, 99%라 그러면 좀 과장 같긴 하지만 적어도 90프로 이상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영어 강의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개인차를 좀 아우르는 정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괄적이기보다는 물론 뭐, 대학교에서 그런 게 꼭 쉬운 일만은 아닌데, 너무 지금은 제도가 딱 하나라서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좀 이렇게 약간 scaffolding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는 애는 가고, 못 가는 애는 그래도 가야 되고 이런 식이라서 교육이라면 아무래도 교육심리학에서 맨날 이야기하지만, 그런 적정한 수준들을 step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강의정책이 10년 가까이 진행되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앞으로 영어강의정책을 어떻게 개선시켜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앞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선방안 외에도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찾아 볼 수 있었다.

Goal이 명확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목표라는, 목표와 이상은 되게 다른 거잖아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역량 있느.. 뭐 그거겠지만, 목표라는 건 예를 들어 적어도 몇 퍼센트 이상의 학생들이 뭐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아니면 뭐 minimum 이 정도는 다 갖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라든가 뭐 암튼, 기한과 역량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 영강 제도가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은 일견 들구요.

3. 학생

가. 정책 및 제도 측면

1) 영어강의의 필요성 및 성과

영어강의의 필요성

영어강의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영어강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였다. 전공의 종류나 졸업 후 취직이나 대학원 진학이냐의 진로에 상관없이 영어는 사회에서 요구되고 학생들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필수역량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영어강의정책이 폐지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어차피 사회에서는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알고 있고, 나중에 기업가도 영어를 안 쓰라는 법은 없지만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은 저는 그냥 약간 영어 강의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어불성설인것 같구요. 왜냐면은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길을 나가든지 언제나 영어는 언제나 있을 것이고, 취직을 한다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어딜 가든지 제 생각에는 100% 영어가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대학교 영어 강의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전공을 영어로 들음으로써 어차피 취직을 한다거나 대학원을 갈 때 그 전공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게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력 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면이 있더라도 그건 이제 책을 보면서 보강, 보완,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네.

The situations what you have to use English are very difficult to escape or avoid.

도입목적 및 성과

첫 번째로 고려대학교에서 영어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가 영어강의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은 대학의 국제화라고 이해하였다. 이들은 영어강의정책을 통하여 민족 명문 사학이라는 고려대학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학교가 글로벌 KU, 프론티어 스피릿 이런 가치를 내세웠잖아요. 들어오기 전에는 고려대학교가 연세대학교와 비교할 때는 민족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학교의 이미지를 세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영어강의는] 그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그러나 실제 영어강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제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이들은 국제화를 위해서는 영어강의의 양적 확대만이 아닌 질적 제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화 시키겠다. 고대 맨날 글로벌 글로벌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강의를 늘린다고 절대적인 양이 늘다고 해서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양보다는 질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두 번째로 학생들은 영어강의정책의 또 다른 목적으로 대학랭킹을 제시하였고, 대학랭킹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대학의 대외적 순위를 올리는데 영어강의가 평가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영어강의정책을 추진한 배경이라고 응답하였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대학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 같은 거 메기니까, 그런 데에도 서열 낼 수 있으려면 그런 조건 중에서 영어 강의가 좀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 실제로 영어강의의 확대가 대학의 외부 평가 및 순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여겼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이유로, 대학 평가가 올라가잖아요. 학교 입장에선 많이 달성 했죠. 많이 올랐잖아요. 대학 순위가.

셋째, 또 학생들의 응답에 의하면 영어강의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확대하려는 목적도 작용하였다. 실제로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영어강의 덕분에 고려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었다며 영어강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To see that school has a lot of English taught courses is a really, really good thing as being as a foreign student.

한국 학생들은 영어강의 정책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기여하지만 영어강의의 질이 제고되지 않는 한 영어강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외국인 유학생들마저도 만족할 수 없는 영어강의의 낮은 질을 고려했을 때 영어강의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현재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저희가 영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외국 학생들이 외국에서 교류 학습을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한 두 개 밖에 없으면, 교환 학생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영강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 같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좀 어쩔 수 없다 싶기도 한데 외국 학생들도 들어봤자 이해 못 할꺼면 왜 열려 있나 싶기도 하고.

설사 영어강의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록 영어를 못하더라도 한국 대학에서 유학할 경우 영어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존재하였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려고 영어강의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힘들겠지만, 사실 외국인 학생들도 영어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결국 똑같아요. 애초에 외국인들이 안 듣는 게 낫지, 괜히 영어강의 개설해놓고 영어 못하시는 교수님들이 영어하면은 외국인 학생들도 더 안 좋은 인상 받으니깐, 그냥 깔끔하게 양질의 영어 수업만 보장해 놓고 나머지는 부담 없게 영어단어만 semi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좋긴한데.

네 번째로 또 다른 영어강의 정책의 목적으로 졸업생의 사회 진출 대비를 위하여 영어강의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제 영어강의가 취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었다. 일부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졸업생의 대다수가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점을 들며 영어강의가 이러한 기업에 취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치면, 해외 영업이나 해외 마케팅 쪽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도 꽤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 영어강의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각도 이들과 동일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

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희망하면서도 영어강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에라도 영어를 익히며 취직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 영어강의를 통해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Probably they will go to corporation, may be to work for Samsung. While they are in their university, they feel that pressure that like, “don’t need this! I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it, why do I have to take English courses?!” But right after their graduation they go and hire private tutors or they go and take courses in academies [to learn English].

물론 일부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기업 취직에 영어가 필요하지만 영어강의를 통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영어 역량을 계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경제학 같은 경우도 제가 나중에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해서 공부는 하는 거지만, 제가 경제학 용어 같은 걸 영어로 알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나중에 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세계화와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분 영어 열풍은 학생들이 영어 강의정책의 목적이 영어실력의 향상이라고 진술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어강의가 영어실력 향상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2) 시행방식

먼저 학생들은 영강정책의 도입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인들이 입학할 때부터 영어강의 정책이 시행되어 왔고 졸업이수요건에 영어강의 의무수강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학생들은 정작 자신들이 왜 이러한 영어강의 정책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강의 정책의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영어강의 정책의 효과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었다.

근데 영강의 장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영강에서, 교육하시는,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의도로 설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화 시키겠다. 고대 맨날 글로벌, 글로벌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강의를 늘린다는 절대적인 양이 는다고 해서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양보다는 질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영어강의 수만 올린다고 해서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느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언급된 학생은 영어강의의 질에 대해도 의문스러워 했고 단지 학점이 잘 나온다는 점 외에는 영어강의 수강의 목적의식과 의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냥 무조건 영어강의 ‘다섯 개 들어!’ 이거는 굳이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영어강의 들으면 좋은데, 그 영어강의를 들게 함으로써 얻는 게 뭔지 그렇게까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전공 같은 거는 들으면 뭐 학점도 잘 나온다, 이렇게 밖에 인식을 안 해요 애들이. 그리고 교수님한테서 얻는 건 없지만 학점은 또 잘 나오니까 그냥 대충 듣자 이런 식이고, 문과 같은 경우는 좀 더 늘 수 있는데, 그래 보았자 얼마나 늘겠냐 이런 것도 있고.

한편, 교수들에게 영어강의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영어강의 정책의 일률적 적용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많이 지적된 바 있다.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학생들 역시 어느 정도 영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졸업요건에 영어강의 수강을 포함하는 강제성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학생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나 필요할 때 영어강의를 수강하기보다 그 시기와 필요성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수강을 강요받기 때문에 영어강의에 대한 좌절과 의욕 감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영어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의무, 의무화를 시킨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반감은 들지 만 그만큼 필요한 걸, 필요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무화를 시켰다고 해서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누구나 영어강의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뭐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면 영어강의를 의무화 시키지 않아도 들어보겠다 하는 의지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겁이나서 못하는 건데, 의무화를 시켜 놓으면 어, 제 생각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영어강의를 들어버리면 일단, 자기가 한 번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그 의지가 감퇴될 수도 있고, 1학년 때 들었으면, 2학년 때 들어서 어느 정도 들었는데, 개수를 채웠는데 또 들을 필요 없겠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게다가 학생의 입장에서 한국인 교수에 의해 만족스럽지 못한 영어강의를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강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보인 학생도 있었다. 즉,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받는 교육인데 전달력이 부족한 수업을 받는 점에서 영어강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교육자들의 입장에서도 영어강의를 강요받는 점에서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저는 영어강의를 지금 수업 말고는 들어본 게 없어서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교수님의 전달력에 대해서 많이, 그,

의문을 삼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꼭 우리 본교뿐만이 아니라 영어강의란 것 자체에서. 근데 저는 전달력이 부족한 수업을, 저희가 아무래도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데, 그렇게 까지 교육자들한테까지 그렇게 영강을 해야 된다고 정책이 잡혀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영어강의 수강이 의무화 되며 영어능력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된 부분이었다.

영어를 너무 잘하는 학생이 많고. 잘하는 학생들이 소수였다면 그 학생들이 한 클래스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수다 보니깐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강의 정책의 문제점을 학생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던 중 학생들이 교수들에게도 영어강의 정책이 부담이 될 거라고 지적한 부분은 흥미로웠다. 학생들은 교수들 역시 영어강의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영어 실력 차이에 따라 교수들 역시 영어강의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수님이 2004년 이후에 채용되었을 때는 전부 다 영어강의를 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그걸 몰랐을 때도, 어떤 강사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대에서 강의를 하려면 영어강의를 의무로 몇 년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수님들 입장에서 도 힘이 드시는 거잖아요. 영어 강의라는 게 부담이 조금 큰 거?

또한 영어강의에 대한 교수들의 부담은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강의의 효과성과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어 부정적 면이 더 크다고 비판하였다.

교수님들도 당연히 영어 실력차이가 있으신데 지금 그 내년도 이후 새로 임용되는 교수님들부터는 필수로 다 영어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교수님과 듣는 학생 모두에게 안 좋은 정책 같아요. 그게 영어로 강의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런 교수님들이 영어강의를 더 많이 진행하시는 게 서로에게도 더 좋지, 그 전달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힘든 교수님들한테 그래도 매년 얼마씩 영어강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영어강의 효과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안 좋은 면이 더 크지 않나...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한테 똑같이 영어강의를 필수로 진행하게 하는 거는 그런 정책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위와 같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어강의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영어강의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다.

대신 영어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를 포함한 원어강의의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정책적으로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영어강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세계화에 발맞춰서,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영어강의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영어강의가 아니라 원어강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영어강의 의무수강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섯 개 가지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강의의 문제점은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 영어강의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었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력을 향상 시키려고 하면 다섯 개 가지고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3) 수강동기

영어강의 수강 동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교수와 학생 모두가 영어강의가 강압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겪었는데도 교수의 영어강의 동기는 의무 또는 인센티브와 같이 단편적이었던데 반해 학생들의 영어강의 수강 동기는 졸업요건 이수, 성적의 절대평가, 영어에 대한 흥미,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등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터뷰에서 관찰된 동기를 살펴보면 졸업 요건 이수 외에 절대평가라는 평가기준이 학생들에게 있어 영어강의를 수강하는데 가장 큰 동기였다. 이는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영어강의를 듣는 데 큰 무리가 없는 한 영어강의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영강을 골라.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영어를 엄청나게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영강을 오히려 듣고 싶어하는 게, 절대평가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그것에 메리트를 느끼고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일부러 영강을 골라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 영강이 점수 받기도 쉽고, 아래저래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못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영강으로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는 수강 인원수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를 적용을 결정하는 학점 부여 기준을 영어강의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영어강의의 경우 일률적으로 절대평가에 따라 학생을 평가한다. 따라서 높은 학점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영어강의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서 교수들도 실제로 영어강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학점을 높게 주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영어실력을 갖춘 학생의 경우,

절대평가의 적용과 본인의 우월한 영어실력으로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자신에게는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실력이 뛰어난 학생들 역시 영어강의 정책이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영강은 절대평가인데다가,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저는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성적을 따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점이겠지만, 영어강의 자체의 보편적인 장점이라고 그러면,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편 영어 자체에 대한 흥미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동기로 인해 영어강의를 수강한다고 답변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처럼 학생 스스로 영어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를 표현한 부분은 영어강의 정책의 목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영어실력 향상에 대해 학생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외국 가서 공부를 하거나, 대학원에 가거나 하면 분명히 내가 써야 되는 용어들이 전부 영어를 써야 할 텐데.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냥 뭐 잡지를 보거나 영어듣기를 하거나, 문학을 보는데 영어를 썼다면, 이제는 전공에다 영어를 다 바꿔보자. 전공도 영어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하는 거고. 옛날에는 안 좋아했어요..

또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와 문화적 특성상 토론식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수업참여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 동기가 되어 영어강의를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 좀 제가 활발하게 참여하고 싶은 수업을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깐 토론 형 수업이 있고. 거의 다 토론형 수업은 영어강의거든요... . 그냥 저는 원래 토론형 수업 찾다보니깐 그 영어강의로 많이 신청

하게 됐어요.

영어가 한국어 보다 편하기 때문이라는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조기유학을 다녀오거나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강의보다 영어강의가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수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초등학교 때 미국 살다 오고 고등학교 때도 영어로 수업 들어서 저
는 한국어 수업보다는 영어수업이 편해서.

근데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영어가 더 편했거든요 훨씬. 왜냐
면 중고등학교를 거의 교육과정을 거기[미국]서 마친 거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거의 영어 쓸 일이 거의 없
으니까 이제 맨날 한국어만 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훨씬 대화에서는
편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부할 때는 또 영어가 더 편하더라고요. 원
서가 더 편하고 한국 번역본보다는.

영어강의 정책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해 교수 못지않게 정책 수혜자인 학생
역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교수들과 달리 학생 스스로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영어강의를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부분에
서 차이점이 있었다.

나. 수업 측면

1) 효과성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이 인식한 영어강의정책의 효과성은 주로 전문 용어
학습과 관련되었다. 한 학생이 “그 과목에 대해서 영어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전문용어들도 알게 되고”라고 응답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한문학과나 국어국문

학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양에서 유래된 학문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전공 용어를 습득하고 관련된 개념을 익히는 데에는 영어강의가 한국어강의보다 유익하다고 응답하였다.

정치외교학과나 경영학과와 같은, 학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은 영미 쪽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미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를 기본적인 스킬 뿐만 아니라 그 전공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의 영어가 필요 한거죠.

영어강의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영어강의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토론형 수업이 제시되었다. 영어강의는 질문을 하거나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수업 분위기가 자유로웠다. 따라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교수 중심의 강의식 수업 일색인 것에 염증이 난 학생들은 영어강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가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좀 제가 활발하게 참여하고 싶은 수업을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깐 토론형 수업이 있고 거의 다 토론형 수업은 영어강의거든요.

대화식으로도 하고 서로 의견도 물어볼 수 있고, 서로 질문도 할 수 있고 오픈식인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국문강의는 잘, 학생들이 질문 같은 걸 잘, 하기 좀 꺼려하잖아요. 영어 강의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좀 더 한국어가 아니라서 그런지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좀 더 말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영어강의 정책은 이외에도 학생들이 읽기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어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영어강의가 원서를 활용하여 수업하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원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독해

실력도 향상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읽기 능력 외의 듣기, 말하기, 쓰기 부분에서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전공 책을 보기 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책을 보는 애들은 교수님들이 설명하거나, 교수님한테 질문을 할 때 영어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어강의를 듣게 되면은 어 용어가 익숙하다든가 이렇게 때문에 좀 더 책을 볼 때 편하고.

학생들이 꼽은 또 다른 영어강의정책의 장점은 **영어에 노출되는 기회를 갖는 점이었다**. 이들은 학교가 영어강의를 통해 학생들을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영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계속, 안하고 싶은 애들 내버려두면 못 하니깐, 최대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푸쉬를 하는 것 같아요.

수업을 들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고 약간 좀 일단 노출이 되면 공부할 의지도 생기고 잘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깐 나도 잘 해야겠다. 당연히 아예 모르고 살면 그런 거에 대한 욕심도 안 생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자극도 되고. 그냥 이런 환경에 그런 환경에서 보고 느끼고 노출된다는 점도 중요한데.

표현들 같은게 영어로 이루어지고 예세이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과제도 있고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영어를 도울 수는 있는 거 같은데 조금이나마 안 쓰는 거보다 나은 거 같은데.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영어강의를 통해 실력이 향상되기 보다는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애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실력이 향상되고 있다기보다는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영어실력 향상이] 목적이라면 그거는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한 학생은 영어강의가 영어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공과목을 영어강의로 들은 후 다시 한국어 강의로 재수강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영어 실력 향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전공을 영어로 듣고 나서 아직 한국어로 재수강하고 있거든요. 그 경제학에서는 특히 경제학 용어는 영어로 다 번역이 되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한 논리 구조라고 해야 되나, 문장 구조나 자주 쓰는 용어들을 영어로 설명할 때, 따라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의 향상이라기보다는 내용 이해가 급급해 가지고, 결국 책을 끝까지 다 못 살펴봤던 기억이 있어요. 영어 실력 향상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한 영어강의는 영어를 학습하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영어를 도구로 사용하여 전공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영어 자체의 학습 및 실력 향상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응답하였다.

전공과목이 영강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영어실력을 높이기보단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 자체를 배우기 위해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

러니깐 영어는 부수적인 거니깐 교수님도 영어를 정말 잘하시면 그 영어실력 늘리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아직까지는 강의 자체를 전달하는 거에 급급하신 부분도 있고, 막 학생들이 영어로 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깐 어려운 개념은 한글로 다시 말씀해주시기도 하고 영어실력자체를 높이는 자체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Unless the course is very language oriented, very focused on teaching English, in a certain way, whether it's a English reading, discussion or even academic, or like beginner's English, I don't think it has an effect of improving somebody's English.

그렇지만 영어강의 가운데서도 영어를 도구로 전공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라 ‘실용영어’와 같이 영어를 학습하기 위한 강의의 경우 회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1학년 때 들었던 실용영어만큼은 매우 도움이 되었어요. 실용영어는 정말로 실용적인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회화를 하잖아요. 한국인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화가 안 되는 점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수업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의 영어스킬 늘은 게 지금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시한 영어강의의 장점은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다. 원서를 활용하고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대학원의 특성상 영어강의가 이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원에 유학을 갈 때에도 진학에 유리하며 수업에 적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원을 해외에서 다니고 싶은, 석박사를 해외에서 다니고 싶은 학생들에게 영어강의로 수업을 들으면 적응하는 거에는 그래도 영어를 한 두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이해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덜 어려워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영어를 통한 강의는 전공지식의 습득을 저하시킨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한 학생은 영어가 중요한지 전공이 중요한지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소한 전공에 관해서만은 국강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어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 입장에서도 강의력을 100퍼센트 발휘를 못하잖아요. 모국어가 한국어다 보니깐 자기 실력의 7~80% 밖에 발휘 못하시는 교수님도 계실 테고, 50% 밑으로 발휘하는 교수님도 계실 테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다 받아들이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이해력이 떨어질 테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강의의 질도 떨어지고 할 텐데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가르쳐주니깐 좋은 것이 아니냐,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낮추는 대신 영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영어가 중요하냐 전공이 중요하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 형평성

학생의 입장에서 영어강의가 교육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의견은 교수들 사이에서 지적된 바 있다. 앞서 영어강의의 시행방식이나 수강동기에 대한 부분에서 학생들도 수업에서 영어실력이 좋지 않은 학생은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영어강

의가 본인에게는 좋은 학점을 받기 수월한 부분이 좋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 장점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학생들도 영어강의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거나 유리할 수 만은 없다는 불공평한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과 같이 국제학부와 같이 모든 수업이 영어강의로 진행되는 곳에서 입학전형 유형과 영어실력의 차이로 인해 불공평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학부에도 많아요. 그니깐 정시생이, 적어 보이긴 하는데, 애들도 이해되죠. 수능치고 국제학부 왔는데 너무, 개념들한테 좀 불공평한거죠. 영어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와서 다 영어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국제학부에서도 경제 쪽을 하죠. 영어보다도 좀 풀 수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적응을 하는 데 영어가 잘 되면 훨씬 편하니까.

3) 영어강의의 수업효과를 저해하는 요인

학생들은 영어강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공 지식 전달의 어려움에 대해 그 이유는 영어강의를 가르치는 교수들의 영어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영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어강의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교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영어로 전공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힘든 교수님들한테 그 래도 매년 얼마씩 영어강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영어강의의 효과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영어로 말해야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말해야 하니까 개념을 설명할 때 돌아서 설명하는 듯 한 느낌을 받을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해야 하나요. 개념 설명할 때, 진도가 좀 늦어진다거나 그런 게 조금.

일부 학생들의 경우 영어강의에서 경험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어로 진행되는 또 다른 수업을 수강하거나 한글로 된 번역본을 이용하여 영어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돋고자 노력하였다.

전공 수업을 듣고 있음에도 또 다른 수업[인터넷 강의]을 듣거나
한글로 된 번역본을 봐서 영어강의에서 놓친 공백을 메워야 [해요].

영어강의에서 전공 지식의 전달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은 교수의 발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인 영어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들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어강의를 제공하는, 교수님들이 제공하는 방법보다는요. 그래도 일차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교수님들의 영어 실력이, 그러니까 발음 전달력이 좋아야 그 과목이 이해가 잘 되는데 보통 그것부터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막상 전달하는 도구가 영어잖아요? 도구가 안 좋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교수님들 영어발음부터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밖에 학생 영어실력의 한계도 강의의 질이 좋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전반적인 문제점은 교수님의 전달력이랑,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거 같아요. 물론 모두가 다 영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인거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부족한 교수들이 강의 의무를

학생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교수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할 경우 수업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교류가 제한적일 수 있다. 게다가 교수가 강의를 통해 설명해야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대신 학생들의 역할과 참여도가 높은 발표와 팀별 프로젝트로 수업 대부분을 때우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교수님들 중에서도 영어가 약간 자신 없으신 분들은 약간 질문도 오면, 학생이 영어를 정말 잘하면 교수님들이 약간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과목 자체는 교수님이 많이 강의를 해 주셔야 하는 과목인데 학생들 팀플이라든지 발표로 많이 미루고 담당 안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 효과적 영어강의를 위한 개선방안

앞서 제기된 영어강의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수들의 의견과 중복되는 제안으로는 영어실력이 검증된 교원이나 외국인 교원이 영어강의를 전담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일단은 교수님께서 영어로 가르치실 역량이 안 되시면, 안 가르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영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영어강의를 많이 진행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영어강의를 듣는 게 훨씬 쉬워 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그, 가르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그게 먼저 개선되어지고, 전공별로 영어강의 그 수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영어강의를 해야겠다면 전공을 가르칠 수 있는 외국인 교수

를 모시는 게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못하겠으면 차라리 하지 말던가.

또 학생들은 교수도 영어강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좋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영어실력이 있는 교수에게 효과적으로 수업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반영된 개선방안이라고 보여진다.

전 교수님들이 당연히 영강을 많이 해야 고대 뭐 순위가 올라가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교수님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선택인가요? 좀 강압적이죠? ... 그래서 당연히 해외유학파가 많으셔서 다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부담까지 주면서 해야 하는 건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교육받은 분들을 자기가 제일 편안한 상태에서 제일 좋은, 이제 교수가 되게 해야지 막 굳이 영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수님들이 자기 potential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건 교수님도 학교도 손해니깐.

다음으로 많이 제시되었던 개선방안은 영어실력향상을 위한 영어강좌 개설에 대한 요구였다. 고려대학교는 1학년 때 실용영어 1, 2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이 수업은 영어회화 및 작문 등 영어실력향상을 위한 영어수업으로서 학생들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은 실용영어와 유사한 수업을 증설하여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또 영어를 위한 영어강의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어를 못하는 학생도 학점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자고도 제안하였다.

저는 학교 안에 영어를 위한 영어강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영어를 배우려고 또 무리해서 다른 학원에 가

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TOEIC, TOEFL 대비반을 따로 또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영어에 대한 강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원래 영어를 잘하던 애들은 실영을 가서도 영어를 편하게 잘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교수님들도 원래 잘하시던 분들은 계속 잘하시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따로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영어수업이 있기는 한데, 영어 잘 하는 애들이 점수 따기 쉬운 것 들? 약간 기업영어라든지, 실용영어 이외의 수업들은 다 그냥 못하는 애들이 들어가면 학점이 더 안 나와서 더 안 듣게 되는 수업들이라서, 잘하는 애들 듣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좀 편한 수업을, pass or fail로 들을 수 있는,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개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PT 이런 것도 교수학습 개발원 보면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사실상 그건 시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니깐 1학점이나 2학점이라든지 되게 그냥 편하게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이러한 영어에 초점을 맞추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강의를 돋는 방법은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갈 수 없는 학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어 형평성의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왜 영어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환학생도 이번에 신청해서 갔다 온다고 그러고 어학 연수도 다녀왔고요. 물론 가정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좀 솔루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옵션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영어를, 실용영어가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게 좀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인 거 같은데, 그거 말고라도 학교에서 진짜로 학생들의 수준을 올리고 싶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돈을 많이 받지 않고, 그냥 토익 이런 거 시험 위주 말고요. 실제로 회화 같은 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또 전공 등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 강의의 수준을 낮춰 영어실력향상이라는 영어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언어의 수준이나 수업의 수준 자체를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전공을 가르친다면 전공을 외국의 고등학교 수준으로 맞춰 가르친다면 난이도는 물론 떨어지지만 난이도가 떨어진 만큼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깐 영어에 목적을 둔다면은 조금 더 쉬운 걸 가르쳐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어려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 영어강의 운영을 위해서는 영어 능력별로 분반하여 영어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다.

애초에 입학하기 전에 영어실력을 상중하로 나눠서 그 분들이 좀 들을 수 있게… 자기들이 올라가고 싶으면 레벨을 올려서 이제 좀, 이제 마치 EKU 들어가면 자기 영어성적이 뜨듯이 해 가지고 자기 맞는 영어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면은 조금 더 부담을 줄여서 편하게 영어 수업을 듣고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양측면에서. 그런데 전공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전공을 수준별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건 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긴 한데 교양이나 영어를 익히는 그런 쪽은 확실히 수업을 수준별로 다양화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차등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같은 클래스에 있는 영어 실력의 격차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곤혹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등급별로 나눠서, 크게는 말고 두세 단계 정도로. 수강신청 할 때는 몇 급 이상의 학생들만 수강 신청 가능이라던가. 이렇게 영어 실력이 약간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클래스를 개설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낮은 단계의 학생들을 영강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영어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던지, 그런 것도 존재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못하는 학생들만 모은다 기보다는 적절한 비율이랄까. 수준별 학습처럼.

애초 영어실력의 차이 때문에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수업 성적을 받는 것보다는 영어실력에 따라 분반된 강의에서 수업을 들음으로써 영어실력이 좋지 않은 약자에 속하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능력별로 해야 하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랑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해 버리니깐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람이랑 외국에서 안 살고 온 사람이랑 수업 들으면 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답답해서 못하잖아요. 그니깐 저는, 저 같은 사람들끼리 뭉어놓고 따로따로 해야지, 학교가 관리를 해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너무 약간, 약자들에게, 보호를 안 해주는 정책 같아서.

또 일률적인 영어강의 다섯 과목 수강이라는 졸업요건을 부여하기보다는 전

공 특성에 따라 영어강의 의무수강 수를 조절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들을 수 있었다.

그냥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문과랑 이과랑 특성이 되게 달라서, 목적이 좀 달라지는 거 같아요. 결과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너무 딱 하나 정해서 이것을 모든 과에 정하기보다는 어떤 과는 영어 강의가 진짜 좋고 필요하고. 국제학부는 무조건 영어로 하는 게 맞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영대나 이런 데도 경영 쪽을 나가면은 뭐 글로벌이라고 해서 회사들도 이제 해외랑 교류하는 경우 많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어교육학과 이런 데는 국어교육, 수학교육 이런 데는 영어로 교육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과나 대학의 특성에 따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아, 너는 모두 영어 강의 5개 이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과에 따라 특성상 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과도 많잖아요. 한문학과나 간호학과, 교육학과 등. 이러한 학과는 영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영어를 강요하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좀 더 전공 공부를 한다던가 다른 교양을 쌓는 다던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학교육과? 그러니까 선생님이 될, 선생님들이 되 가지고 영어로 가르치진 않잖아요 수학을. 그러니까 아예 미래에서 아예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뭐, 역사학과? 이런데는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100% 영어가 가능하냐가 아니라, 어떤 과마다 특수성을 고려해서 한다면 좀, 지금 모든 학생이 다섯 과목이잖아요? 만약 개선을 한다면 특수성을 고려해서 만든다면 좀 더 불만이 없어지지 않을까.

더불어 비슷한 맥락으로 교수 역시 학생들의 영어강의 부담을 들며 영어강의 관련 졸업요건의 완화를 제안했고, 같은 의견을 학생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원어로 전공이 없는 학생에게는 5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니깐 실용영어 I, II 애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정도 해서 3개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과목의 영어강의와 한국어강의 동시 개설 역시 영어강의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제가 작년에 전공을 들을 때 영어로밖에 못 들은 이유는 영어로만 개설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올해는 선택권이 생겨서 국강을 들게 되니까 그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어강의를 만들 때는 국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강을 같이 만들어 놓는다고 분명히 국강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영강을 안 듣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에 들어올 정도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들을 사람들은 또 듣고, 불만 없이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강의를 할 때 국강을 같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

상술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영어강의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강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의하지만, 정책의 효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V. 영어강의 정책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경희대학교 사례

1. 사례대학 특징 및 영어강의 정책

가. 개관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는 서울과 경기도 수원에 캠퍼스를 둔 4년제 종합사립대학으로, 2012년 현재, 25,37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경희대는 1,418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어, 재학생 대비 전임교원확보율은 77.4%이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5.3명이며, 2012년 1학기를 기준으로 개설된 총 9,284.5의 강의 학점 대비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46.3%이다.

경희대는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최우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4개의 주요 국제화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경희대의 국제화 지표는 크게 학생측면에서 외국인 학생 수와 해외파견 학생 수, 교원측면에서 외국인 전임교원 수, 그리고 교수학습측면에서 영어강의 수를 포함한다. 외국인 전임교원 수는 2009년 52명에서 2012년 132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하였고, 외국인 학생 수도 2009년 860명에서 2012년 3,045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하였다. 해외 파견학생 수의 경우, 2007년에는 447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1,104명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여 3.5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경희대학교, 2010).

국제화 지표로서 경희대가 영어강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대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 김종복(2012, p.3)은 경희대의 「영어강의 질적 개선 방안 연구」에서 세계적 수준의 영어강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로부터 출발한다고 규정하였다.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초적 환경 조성

국내외 유수 대학들의 국제화 경쟁 동참, 국제화 선도 대학으로 발돋움
연구의 선진화 및 대학 경쟁력 확보
외국 유학생, 공동학위, 교환학생제도의 구체적 활성화
국제적 소양과 능력을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국내외 경희 지성인의
영향력 확대
학습수요자들의 국제적 감각을 통한 경희인의 글로벌 마인드화

2005년 1학기를 기준으로, 경희대의 영어강의 비율은 약 4.73%였고, 대부분의 단과대학들은 영어강의를 개설하지 않았으며, 경영대학(2.02%), 호텔관광대학 (1.58%), 이과대학(1.88%), 정경대학(2.63%) 등에서 소수 강좌들을 영어로 제공한 바 있다(김종복 외, 2006). 그러나 2011년에 들어서면서 영어강의는 42.10%로 급격한 비율 상승을 보였다. 2011년 2학기 기준으로 단과대학별 영어강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응용과학 대학이 50% 이상의 영어강의비율을 보이고 있고, 국제대학은 개설하는 강의 100%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문과대학, 한의과대학, 국제경영대학, 외국어대학은 5~20% 사이에서 영어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김종복, 2012).

나. 영어강의정책

김종복(2012)은 경희대 영어강의정책의 목적을 “교수가 강좌를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국제화된 감각을 키워주고 영어강의에 대한 경험을 넓히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p. 4)”으로 보았고, 영어강의란 학부 및 일반대학원 과정에서 수업 전체를 영어로 강의하는 강좌로 정의하였다. 경희대 영어강의정책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수 측면: 필요시 폐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학기별 영어강좌당 수업보조금 지급
학생 측면: 영어강좌는 절대평가에 기반하며, 성적평가 시 학점표준화제도 적

용 면제

지원 측면: 영어강의 워크숍, 학생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기법 워크숍, 석사 학위 원어민 강의 컨설팅 등

경희대의 영어강의정책은 1) 교수초빙 공고문, 2) 전임교원임용규정 제4조(계약등) 제2항 제3호 ‘계약조건’, 3) 임용계약서 제4조(책임강의시간) 제3항‘매학기 1강좌 이상을 영어로 100% 진행하여야 한다(년 2강좌 이상)’를 관련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영어강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도 적용하고 있다: 1) 교수연구년제 신청 제한, 2) 대외기관 겸직 및 출강 허가 제한, 3) 교수업적평가 특성화 관련 특정 군의 선정 제한.

영어강의 의무 교원이 최초 임용학기 이후부터 미실시한 영어강좌는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며, 이후 기준 의무 강좌 수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강좌 수만큼 상쇄된다.

2. 교수

가. 정책 및 제도 측면

1) 필요성 및 성과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위하여 영어강의는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물음에 대하여 교수들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영어강의정책의 정당성도 인정하였다.

[영어강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 얘기할 때 국제화다 세계화다 하며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영어 자체가 지금 세계 공동 언어로서 하나의 필수 과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강의]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영어를 공용어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영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영어가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강의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의견에서 볼 때, 교수들은 국제사회에서 영어가 실질적 공용어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영어강의정책의 정당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국제화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영어강의의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담에 응한 외국인 교수들은 한국대학들의 영어강의정책은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한국대학들은 영어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수강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노력과 성과를 요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교수학습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대학의 영어강의 활성화는 한국 대학생들의 해외언어연수 수요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영어강의정책이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경희대의 영어강의의 목적은 국제화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본 목적은 글로벌 인재에게 요구되는 국제화 능력은 궁극적으로 영어실력에 달려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영어실력이란 일상생활 영어를 단순히 구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분야를 영어로 이해하고 토론하면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말한다. 전자의 영어가 daily life english라면 후자의 영어는 professional english를 지칭한다(김종복 외, 2006, p.4).

그러나 흥미롭게도 교수들은 경희대의 영어강의정책을 이중 목적 지향적으로 인식하였다. 교수들은 영어강의정책이 지향하는 첫 번째 목적을 국제화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보았다.

[영어강의의] 목적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당장 실생활에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계속 하든 직장을 가든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기구를 가든 글로벌한 인재가 되던 간에 [영어는]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언어이고 가장 먼저 부딪힐 언어이고 가장 힘든 언어 중의 하나기 때문에 대학교 때 제대로 된 이런 영어교육을 받지 않고 사회 나가거나 세계무대에 나갈 경우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점들은] 경희대의 [영어강의정책] 목적하고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영어강의정책은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높여주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반적인 언어역량 향상을 지향함으로써 국제화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교수들의 인식도 유사하였는데, 경희대의 영어강의정책은 학생들을 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게 교육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대학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한 외국인 교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I think one purpose of EMI policy could be to get students familiar with international way of studying and teaching. I think English is important for those who want to work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communicate with international audience, to take part in the conference, to write some publications...So it could be one reason. Also in general to help students learn English. Well they have special course just to learn English but as far as I know, there are some courses which are taught by Korean professors in English. In our department, faculty tries to encourage students to have these English courses.

한편, 교수들은 대학평가와 이에 의하여 매겨지는 대학순위를 영어강의정책이 이중적으로 지향하는 두 번째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대학의 영어강의정책은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적 목적과 더불어 대학평가에서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영어강의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두 번째 정책 지향 목적은 다분히 전략적이다.

국제화 지향이라는 부분에 [영어강의정책의] 맥락이 맞추어져 있고 [대학]평가에서 [영어강의의] 지표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학교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목적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것이고, 지금 현재 영어강의가 팽창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목적이 당연히 있겠죠. [그] 목적 자체가 문제점을 양산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학교의 랭킹이 [영어강의정책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랭킹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세계화지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강의를 몇 퍼센트 올려야 되고 학교의 [영어강의정책]목표라는 것이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세계화 추세에 맞춰 간다는 것 그것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그거 못지않게 학교의 전체적인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등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그 두 가지가 목표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정책 지향 목적인 대학평가와 순위 관리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인식이 많았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교수들의 의견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학교에서 영어강의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지표 올리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전공 교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전공의 필요보다는 학교 정책상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근데 왜 정책이 그렇게 되었을까를 되짚어 보면 뭐 각종 일간지라든지 학교평가기관에서 하는 학교평가에서 영어강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교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일 뿐. 저희의 학습효과라던가 학생들의 어떤 학업에는 전혀 관련이 되어있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당연히 랭킹이겠죠. 모든 교수님들이 다 아실 거고.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상위권 하니까 뺏기기 쉽고, 그러니까 영어강의 푸시를 하고. 솔직히 글로벌 인재양성에 비해 랭킹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신거 같아요. 학교에선. 랭킹도 올리고 싶고, 애들 진짜 교육도 시키고 싶고.

이상의 면담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교수들은 국제화시대에 영어가 국제적 공용어로써 영향력을 더해가는 이 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경희대의 영어강의의 정책적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영어강의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은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외에도 대학평가에서 비중이 높은 지표인 영어강의의 비율을 높여 대학순위(대외적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이중적으로 포함한다고 인식하였다.

성과

인터뷰에 참여한 교수들의 영어강의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우 분명하였다. 교수들은 경희대의 영어강의정책은 대학의 국제화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데 정량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대학이 진정으로 국제화되는 데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는 다소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아니, 국제화는 중국학생들이 많이 와서 된 것 같은데요. 수업은 맨 영어만 강조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저하게 [국제화되었다고] 느껴지지 않네요.

다만, 교수들은 영어강의에 의한 국제화의 양적인 팽창이 경희대를 진정한 국제화의 길로 들어서는 전환점으로 인도한 것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간 이루어진 급속한 양적 국제화가 노정한 문제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질적 성장을 위한 전환의 동력으로 만드는가이다.

전 이렇게 볼게요. transition period라고 봐요. 전환기인데, 이게 잘못된 것을 시정해가면서 gradual하게 접근을 해야 도는데, 스피드가 좀 빠르긴 해요. 점진적으로 가야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국제화 성과의] 목표치를 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 시행방식

강제성

면담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경희대 영어강의정책의 특징으로 정책 적용상의 강제성과 일방향성을 지적하였다. 강제적 정책 적용의 주요 양상으로서 교수들은 전공별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 영어강의의 의무화와 일방적 정책 시행을 강조하였다.

무조건 영어강의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영어강의가 필요한 과목이 있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과목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 양적인 것도 좋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선별적으로 작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어강의가 필요한지 또는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은 교수자들이 충분히 선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획일적으로 학교에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교수들은 영어강의의 일방적 강제의 예로서 학과별 영어강좌 의무 비율의 유지에 대한 학교의 강요를 들었다.

[신임교수에 대한 영어강의 의무 규정과는] 상관없이 학과 당 할당이 있잖아요. 그런 게 지켜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안하면 [우리 학과의 영어강의비율이] 줄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이제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안 줄이는 차원에서 저는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학과도 [전체 제공되는 강의들 중에서 영어강의의 비율을] 46% ~ 50%로 맞추거든요. 아시겠지만 계속 이게 improve돼야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상과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학과나 단과대학에서 각 전공별 특성과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영어강의의 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학교로부터 강제적으로 영어강의 의무 비율을 할당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학과나 단과대학 차원의 불만에 대하여 교수들과 학교 간의 소통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었다.

저희는 [영어강의 희망 비율을] 제시할 수 없는 게, 학교에서는 무조건 의무이니까. 학과하고 단과대학에서는 아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 학기 한 과목을 해야 하는 거지. 그거 외에는 어떻게 계획할 수가.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학교에서] 들어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였으면 벌써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번,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더 경미한 사안들도 학교에서 뭐 쉽게 응해주지 않아요.

영어강의의 정책적 강제에 대하여 교수들은 영어강의의 필요성과 시행 여부는 교수 개인의 전문적인 판단이나 학과와 전공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다. 특히, 학과나 단과대학에서 주도하는 상향식 (bottom up)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전공의 특이성입니다. 그 전공에 영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결정이 났더라도 필요한 것도 정도로 range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학과회의나 단과대학 회의를 거쳐서 분명히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공에서의 [영어강의] 필요성을 교수들과 상의를 해서, 말하자면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별로 [영어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과까지 강압적으로 [영어강의를] 하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학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학과의 실무를 보고 있는 교수들이 [학교의 영어강의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대학본부에서] 좀 수렴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교수들은 전공별 특성이 영어강의정책의 적용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즉, 각 전공에서 다루는 난해한 지식을 영어라는 생소한 언어 도구를 사용하여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보았다. 이 같은 비판에 인식을 같이 한 한 교수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면적인 영어강의 시행에 대하여]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이과계열] 전공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영어

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전공을] 가르쳐야하는데 [영어로 수업하면] 제가 원하는 만큼 학생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니까. 그거는 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아무리 영어로 잘 설명을 해도 일단 학생들의 영어 이해도가 떨어지면 영어 커뮤니케이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공지식을] 이해해야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영어가 중간에 걸리면 애들이 [전공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있어서는 [영어강의]는 마이너스가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일단 과목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강의] 안하는 것이 [전공 학생들에게]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대학에 전공을 [공부]하러왔지 글쎄요. 영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데.

아울러, 전공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영어강의정책은 대학의 교육철학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었다.

학교의 철학의 문제라는 거죠. 강요를 해가지고 평가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의 입장에서 전공을 아주 우수하게 다 마치고 나가는 사람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전공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그냥 영어를 좀 더 소통하는 걸 해가지고 내보낼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제 담당 교과 교수로서 당연히 제 전공을 다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그 대학의 교육목표가 과연 달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영어강의의 일방적인 정책적 강요에 대하여 외국인 교수도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영어강의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같은 의견은 영어강의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학순위를 염두에 둔

전략인지에 대한 한국 교수들의 비판적 시각과도 맥이 닿아 있다.

If there are problems [in the EMI policy], it could be the way that the policy is developed or the way that it is implemented. You can see that English based education is not authentic. It is not a real stuff. It is Hagwon(學院). I think what happens in Hagwon is that students become sort of robots and the English is very, very rigid. There needs the reality of the language.

이상의 면담조사결과들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학교측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영어강의정책은 전공(학과)별로 이뤄지는 특수하고 심오한 전문적인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대학교육 본연의 목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분 영어강의 제도

경희대의 영어강의는 제도적으로 완전영어강의와 부분영어강의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완전영어강의는 영어로 한 학기 16주 수업을 100%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영어강의는 수업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러나 부분영어강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은 분분하였다. 일부 교수들은 전공교육의 학습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분영어강의의 제도적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일부 다른 교수들은 부분영어강의 제도적 모순과 함께 영어강의의 본래 의도를 저해하는 편법적 교수법이라는 점에서 비판하기도 하였다. 특히, 부분영어강의로부터 파생되는 수업현장에서의 교수학습적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먼저 부분영어강의의 긍정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교수들은 부분영어강의가 완전영어강의가 지닌 단점을 보완하여 영어로 인하여 전달 언어가 전공지식의 습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은 이에 대한

어느 교수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다.

전체 100% 영어강의와 부분영어강의는 차이가 있는데, 완전영어강의는 조금 더 단점이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부분영어강의를 한다고 해서 [수업에] 들어가서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이 있다면 월요일에는 다 영어로 하고, 목요일은 다 한국말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영어로 수업을 듣는] 수준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부분]영어강의의 긍정성은 있습니다. 제 전공을 [부분영어로] 강의해봤을 경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체 영어강의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무슨 전공지식이 아니라 이놈의 영어 좀 못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낙오할 수도 있고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0% 영어[강의]가 갖고 있는 단점을 지적하면서 부분영어로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낙오하는 학생들을 대부분 거둬들일 수 있는 게 부분영어의 힘입니다.

반면, 부분영어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우선 부분영어강의가 제도적으로 애매하여 영어와 한국어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혼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수업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부분영어강의라고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공문이 부분영어라도 영어를 완전히 100% 써야 된다고 왔었고 그게 중간에 왔었어요. 학기 중간 즈음에 [그런데 학생들이] 한국말을 더 섞어달라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dual식으로 했어요. 영어로 얘기해주고 못 알아듣는 어려운 부분 같은 거는 한국말로 한 번 더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에 또 [아무리 부분영어라도] 영어로 써야 된다, 이런 것이 오고. 아 어떤 쪽을 따라야 될지 참 애매했어요.

이렇듯, 부분영어강의의 제도적 기준과 지침이 모호하다 보니 부분영어강의가 수업현장에서 본래 의도와는 달리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부분영어강의를] 한국말로 많이 하시죠. 학생들에게 “무슨 강의? 아, 그것도 [부분]영어강의로 해? 힘들겠네?” 하면, “아니에요, 뭐, 한국말로 해요” 이러니까.“가끔씩 영어로 해요” 뭐 이러면서.

저희 단과대학 안에서 부분영어강의라는 것은 50% 이상의 강의를 영어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에서 100%, 100%는 너무 했다. 95% 정도까지는 한국말로 하고 교재만 영어로 하고 있어요.

한편, 부분영어강의제도 자체가 대학평가와 대학순위를 염두에 두고 영어강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견해도 있었는데, 이는 부분영어강의도 완전영어강의와 구별 없이 대학평가의 영어강의 성과로 온전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술하였듯이 부분영어강의가 수업현장에서 일부 과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대학평가에 실제로 반영된다면 대학의 국제화 성과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부분영어강의는 [대학평가에 지표실적으로] 나갈 땐 영어강의로 다 같이 카운트가 되어서 나가요. 어차피 한국말로 되는 거 교재는 어차피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어차피 저 교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다 한국말이에요. 리포트도 한국말이고, 교재만 영어로 해요. 파워포인트만 영어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제지수는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글로벌 인재양성에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새로 온 교수가 부분영어[강의]를 해요. 그럼 학교 측에서 카운트할 때는 영어

강의 한 거예요. 그럼 계약은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본인은 강의를 한국어로 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분영어강의의 과행적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애초에 의도한 정책적 성과를 기대하려면, 교수들은 교수자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정해진 수업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교수의 확고한 교육철학과 열의에 기초하여 영어와 전공지식의 전달 간의 현실적 균형점을 학습자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음은 부분영어강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이다.

부분영어강의에서 교수님들께서 첫 날에 syllabus를 나눠주시면서 course overview해 주시면서 하는 약속을 일단 지키셔야 되겠죠. 제 자들하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켜주셔야 할 거라 생각하고. 교수가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100%야? 부분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부분영어강의의 철저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어강의에서 영어의 활용 여부와 수준을 객관적으로 묻는 문항이 강의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 강의동기, 보상과 유인

경희대는 정책적으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영어강의를 장려하고 있었는데, 그 핵심은 영어강의 수업보조금이라는 보상요인과 절대평가라는 유인 요인이었다.

교수들은 학교의 영어강의 지원정책은 수업보조금의 지급이 유일하다고 입을 모았다. 영어강의 수업보조금이란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학의 영어강의정책의 일

환으로서 영어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자에게 수업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적 인센티브이다. 그러나 보조금의 액수가 영어강의의 수업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보상하고 있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수업현장에서 과행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영어강의에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으로 인한 보조금 재원의 비효율적 낭비에서 찾기도 하였다.

인센티브는 완전영어강의 하나 하면 한 학기에 120만원 주잖아요. 부분영어강의는 60만원 주고요. 솔직한 얘기로 네 시간 세 시간씩 엑스트라 office hour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인센티브 지원은 턱없이 모자라죠. 왜냐면 세, 네 시간 정도를 더 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 노력을 한다면 저는 이거는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분영어강의가 [잘] 지켜질 것 같지 않으면 부분영어강의는 없애고 거기 주는 지원비 자체를 완전영어강의에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학생들의 영어강의 수강을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인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전략적인 이유에서 영어강의를 수강한다고 보았다.

[영어강의가] 절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그만큼 또, 어, 끌어들여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아무리 못해도 그런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듣는 거고.

절대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교수자가 정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성적의 위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은 영어강의에서 부딪치는 언어적 한계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 절대평가로 인하여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 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의 영어강의 수강선택이 해당 교과가 다른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 일차적인 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인 영어강의를 전략적으로 수강하여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가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나. 수업 측면

1) 효과성

다음으로, 교수들은 주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기대되는 효과들에 대하여 개인적 경험의 기초한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하였다. 먼저,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영어강의로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은 국제 공용어인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동시에 해당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영어 관련 공인 성적을 준비하거나 영어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효과도 있다.

국내에서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학원에서 가서 프리토킹(free talking) 하는 것이 다일 테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영어강의는 영어와 교과의 전공지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토익하고 토플점수 올라갔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교수님, 영어로 글을 써본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쓰다보니까 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영어로 강의를 들어볼 수 있었다는 건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외국인 교원들도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영어강의의 수업효과를 인정하였다. 다음은 이에 관한 한 외국인 교수의 의견이다.

Lots of good things [for students]. you know in Korea we have Hagwon, we might call it Hagwon English. So they have an English like "Hello, how are you? I am fine, thank you, And you?" In the university, they get exposed to real English. Secondly, a lot of vocabulary is important to them anyway. And English also gets students mix of more mature, so they have to get step out of their comfort zone. They have to get up and speak. So they are not only learning English in a sense of English, but they are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which are very important.

한편, 영어강의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수들이 영어강의를 주기적,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스스로도 역시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활용하는 기회를 만들게 되고, 이는 곧 영어감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교수 얘기를 하면, 영어가 계속 늘고 안 까먹어요. 영어강의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영어는 점점 퇴보되게 되어 있고 갑자기 영어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정말 안 나와요. 언어는 다 똑 같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안 하셨던 분이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영어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영어권에서 학위를 받아오신 분들은 까먹지 않고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러한 영어강의의 긍정적 효과들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부정적인 효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인식하였다. 먼저, 교수들은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국내 학생들 특히 주로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영어라는 언어 장벽에 부딪

하면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못한 학습 성과의 저하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학습자이든 교수자이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배우는 전공 지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기가 힘든 거 같아요. 교수자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힘들 것이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완전 미국인이 와서 가르친다고 해도, 진짜 영어를 100%하는 미국인이 와서 가르친다고 해도 그걸 완벽하게 소화해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공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는 그게 한국어로 학습을 할 때보다는 영어로 할 때, 자기 모국어가 아닌 영어, 외국어로 배울 때 훨씬 소화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식을 본래 그 수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학습목표나 이런 것들을 달성을 기대 수준에 많이 못 미치는 거 같아요.

외국인 교원들도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언어로 인한 일종의 소외감이 팽배한 학습 환경에서는 특히 영어실력 자체가 전공지식의 습득 정도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Negative aspects of the EMI program are that certain students who are not willing to improve their English might not get as much knowledge. Right? They might not get access to the contents of the class. And it might invoke a little bit of hostility towards English as a language. Little bit of resentment, "Oh, I supposed to speak English everyday, I don't want to" Then, they get negative attitude.

특히 전공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부담감과 이로 인한 교수의 수업 부담이 맞물리면서 전공지식의 전이라는 수업목표와 영어라는 수업을 위한 언어적 도구 간의 목적 전도가 일어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수업목표가 전공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영어가 되어 버리는, 그래서 애초에 의도한 수업목표가 영

어에 의하여 변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수들은 대학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한 교수의 비판적 의견이다.

전공수업의 질을 놓고 보면 질이 많이 하락되었다고 느끼죠. 한국 말로 강의를 했을 때와 영어로 지금 하고 있는 학습정도,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수준, 뭐 논의의 깊이 이런 것에서 봤을 때 현저하게 나빠졌죠. 악화된 상태라고 보죠. 영어공부도 아니고 전공공부도 좀 덜 되는 것이 아닌가해요. [영어강의의] 논의수준이 너무 얕아요. 팩트(fact)만 주입시키고 끝나는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하면은. 팩트만 전달하는 것도 아주 벅차요. 반복적으로 계속 정의내리는 연습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수업 수준이 대학교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만약에 미국에서라고 치면 좋게 봐서는 한 중학교 수준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느껴지기 때문에, 저한테도 너무나 보람이 없고, 아주 회의적이고 학생들도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에 왔는데, 대학에 어울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한 영어강의에서 언어적 숙달의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과 고민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특히 영어에 능통한 동일 국적의 또래 학생들에 대하여 상대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면담조사에서 교수들은 이들의 감정을 위축, 열등감, 소외감, 자괴감, 자포자기 등의 용어로 표현하였다. 흥미롭게도 부분영어강의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씀으로 인하여 외국인 학생들도 일종의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영어강의에서] 태도들을 보면 위축이 되어 있고, 일단 소극적 이에요. 수업을 듣는 건지 아닌지. 일단 발표니 이런 것에는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거의 1/3정도

돼요. 나머지는 좀 outsider로 밀리는 것 같고. 외국인 학생들한테도 미안하게도 제가 한국말을 가끔 섞어 써야 되고, 또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는 또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은 거기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학생들끼리 발표나 소그룹으로 얘기 할 때는 또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말이 서투른데, 거기에 참여가기가 힘들어지고. 어찌 됐던 간에 수업에서 계속 소외가 되는 그런 학생들이 생겨요.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한 경험이 없는 교수들의 경우, 영어수업을 진행하면서 목격하는 영어로 인한 학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지켜보면서 본인도 유사한 감정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 스스로 제 학생들한테 내가 전공과목을 [한국말로 강의했으면] 좀 더 이만큼은 가르쳤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자괴감,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그런 것을 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괴감이랄까 뭐 자책감 그런 게 좀 그러면 교수들한테 스트레스가 되죠.

이에 덧붙여서,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한계도 영어강의로 인하여 파생되는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이의 원인은 영어에 서투른 교수와 학생이 공통적으로 갖는 복합적인 심정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로간의 어색함이었다.

[한국어강의와 영어강의의 차이점은] 낯설음이죠. [교수와 학생이] 서로 낯설기는 매한가지이고 그런 상태에서 [영어강의]수업에 임하니까 아무래도 마음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긴장을하게 되죠.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질문하세요하면 조용하잖아요. 근데 영어강의는 더 심해요. 정말 아

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이 쇄도하죠. 왜냐면 수업이 끝나면 국어를 쓸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마음 편하게 질문을 하는데 아무래도 수업시간에 영어로 질문을 해야 하니까 학생들은 머릿속에 센텐스 메이킹(sentence making)을 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고 질문을 못하고. 하다못해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도 학생들이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상과 같이, 영어강의로 인하여 유발되는 수업 측면의 부정적 효과들은 크게 세 가지 원인에 귀인하고 있었다. 첫째 영어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국내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수강할 만큼 충분한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둘째, 영어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학교의 정책적 강제와 학생들의 현실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셋째, 영어로 인한 국내 학생들의 상대적 소외와 부분영어강의로 인한 외국인 학생들의 상대적 소외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수들은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절대적으로 일정 수준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현실적 해결방안으로서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감안한 영어강의정책의 유연성을 요구하였다.

2) 형평성

전술하였듯이, 수업 측면에서 발생하는 영어강의의 문제점은 해당 강좌가 다른 지식의 습득과는 무관하게 영어라는 언어의 숙달 여부에 따라 학업성취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우선 교수들은 한국대학에서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이 영어를 못하는 다수의 국내 학생들과 섞여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들 의견의 핵심은 영어강의든 한국어 강의든 학업성취수준은 해당 교과지식의 습득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옳으나, 실상은 영어를 잘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어적 혜택을 누리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한 교수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다

국제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해서 영어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어 강의가 외국인을 위한 강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수업을 들다 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요. 그네들이 모국어인 영어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한국어로 된 강의를 듣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영어강의]는 개네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국내 학생들을 위해서 국제화에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영어강의]수업에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영어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얘기하는 거나 다른 부분들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있어서는 국내 학생들보다 월등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든 없든 영어강의로 진행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좋은 점수는 다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국내 학생들은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조기유학 등으로 영어에 능통한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똑같이 대두되는데, 그 핵심도 역시 전공지식보다는 영어라는 언어에 의하여 학업 성취수준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실력은 뭐 천차만별이에요. 잘하는 녀석도 있고, 외국생활 경험이 있는 녀석도 있고, 아주 극소수지만요. 그리고 정말로 거의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 학생까지도 있을 정도로 실력수준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런데 영어강좌는] 평가를 영어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당연히 영어실력도 형편 없어서 주눅 들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아이들은 특히 [영어]실력이 좋은 아이들, 또 외국인들도 수업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과 비교될까봐 걱정들도 많이 하고요. 그것 때문에 [영

어강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외국인 교원들도 영어라는 언어가 교과지식에 관한 성취수준을 판단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비영어권 국가인 한국의 대학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감수하는 불이익으로 보았다. 이는 비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교수학습을 위한 언어적 도구로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영어 자체가 상당한 영향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전술하였듯이 학생의 영어 실력이 전공수업에서의 학업성취수준과 보이지 않는 상관성을 구축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The students who have problem in understanding English might get lower grades partly because of English. So this can be a disadvantage...Part of the low grades could be low English proficiency.

3) 비효율

교수들이 빈번하게 토로한 영어강의의 문제점은 수업 준비 및 운영 시 발생하는 비효율이었다. 이는 교수가 수업을 위하여 들이는 노력과 시간 대비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한국어 강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함을 의미 한다.

저에게는 [영어강의가] 전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업이 되지 않고요. 제 일만 늘어나는 거죠. 제가 그 영어강의를 준비해야하는 시간, 영어강의를 [위해] 애들 교재를 미리 좀 주고 예습을 시키는 복습한 거를 다시 검사를 하고,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 시간이 많이 소모되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뭘까? 처음에는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영어단어 몇 개라도 외우고 지나가면 안 배운 것 보다는 나으니까, 영어가 조금은 뭐 늘은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효과보다는 뭐 옳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영어강의의 비효율성은 늘어나는 수업준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게 되는 강의효과 및 학업성과의 저하를 포함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내 대학과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모든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였다.

다. 효과적 영어강의를 위한 개선방안

그렇다면, 국제화의 양적 성과 달성에 집중하고 있는 경희대의 영어강의정책이 질적 국제화를 견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수단이 영어라는 언어적 매개를 통한 수업에만 제한된 현 상황은 대학의 진정한 국제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영어강의와 함께 영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적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동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경희대가 영어강의를 통하여 성취한 그간의 국제화 양적 성과들은 이미 그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 단계인 질적 성장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어강의정책을 포함한 대학의 국제화 정책을 추진시기와 준비시기를 적절히 안배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한 교수의 제안이다.

[대학의]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실을 다져야지. 마치 frame이 stable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위로만 올리는 느낌이 들어요. 일층 가서 다시 한 번 구조를 확인하고, 이럴 시기 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고속성장으로만 [가다] 보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밖에요. 공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준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시간을 맞추죠. 그럼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

는 겁니다. 한 두 개 정도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내실을 좀 기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달려보자는 거죠.

셋째, 국제화도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요소이므로, 대학교육의 우수한 질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어강의들은 교수학습의 질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영어에 의하여 지배되는 강의가 아니라 영어는 언어적 도구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수업의 질이 우선되는 강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심화된 전공 지식을 대학수준에 맞는 학습 환경에서 습득하여 전문인이 되기 위함일 텐데, 영어라는 언어적 장벽에 의하여 이 같은 목표들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완전 영어강의든 부분 영어강의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분영어강의의 경우 사실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채 운영되고 있어서 수업현장에서 혼선과 파행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공지식 습득의 제한 외에 소외, 열등감, 자괴감 등의 감정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들이 전공지식의 습득에 우선 가치를 두고 영어강의를 준비하고 수행하려면, 한국어강의의 몇 배에 달하는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수업준비 외에도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상담 등이 포함된다. 학교에서 영어강의비율의 단순한 확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질적 국제화를 지향한다면, 정책 의도에 맞게 영어강의를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수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예, 인센티브, 시수, 수업보조 등)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학생

가. 정책 및 제도 측면

1)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국제화 시대에 영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영어를 배운다는 측면에서 한국 대학에서의 영어강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영어강의의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의 맥락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은 현실 상황에 입각하여 졸업 후 취업성과와 관련한 언어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영어는 당연히 배워야겠죠. 저희가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거나,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례도 많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도 외국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영어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졸업을 하고나면 지금 배우는 그런 영어강의정책이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이 같은 인식에 대하여 외국인 학생들도 동의하고 있었으며, 영어강의는 국제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다. 특히, 영어강의정책을 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들 모두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I think there is more expansion of the globalization in this university. [It is] because I think there are many foreign people. For my English class, I have 20 [foreign people]. So I think the [EMI] policy in this university is the use of English for globalization...Knowing other

culture and foreigners, for Korean people, the more occupations for the Korean students. For Samsung and LG, English is important for Korean students.

I think the school wants to improve English for Korean students and they also want to help foreign students easy to take the class. They want to let Koreans and Foreigners have a chance to study together.

그러나 교수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학교의 영어강의정책이 글로벌 인재양성 외에 또 다른 목적을 이중적으로 지향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제 생각에는 대학순위별 평가 있잖아요. 거기 뭐 글로벌지수 이런 거 올릴 때 영어강의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도 영어 강의 수와 영어 강의하는 교수님 수 이런 거 국제 학생 몇 명인지 따지다보니 그거 순위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일단 속으로는 그런 게 좀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겉으로는 일단 국제적인 인재양성, 첫 번째는 보여주기 위한 거, 두 번째는 국제적인 인재 양성.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를 매년 평가하잖아요. 글로벌 지수라는 평가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 영어강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로벌 인재 양성이란 목적은] 구색 맞추기라고 해야 하나요?

특히 위의 경우, 학생들은 대학평가를 위한 전략적인 목적이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적 목적보다 우선한다고 보았고, 심지어 글로벌 인재양성은 대학평가와 대학순위라는 목적을 대외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일부 있었다.

2) 시행방식

강제성

학생면담에서 드러난 경희대 영어강의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수면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적용과정에서 인식되는 강제성이다. 학생들은 특히 규정에 의한 영어강의 의무 수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래 필수로 [영어강좌를] 몇 개 들어야 되는 규정은 없었는데, 그 이후로 필수로 두 강좌 이상 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겼어요.

지금 이게 바뀌었거든요? 제가 신입생 때랑 [비교하면은요]. 요새 영어강의가 너무 많아서 신입생 친구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계속 들리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신입생 때부터 강 압적으로 듣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영어강의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학생들의 수강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수강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1) 영어강의를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영어강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와 2) 꼭 듣고 싶은 한국어 강의가 있는데 영어강의로만 개설되고 있어 부담감에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그걸 못 듣는다는 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자기가 정말 듣긴 들어야겠는데 영어강의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포기하고 학점 때문에 그걸 들어야 할 수도 있고요. 영어수업은 자신이 원해서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강의]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의무적으로 몇 학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강제성이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기존의 한국어강의였던 전공과목들이 영어강의로 상당 수 전환되면서 수강인원 수가 대규모인 학과들(예, 경영학과)을 제외하고는 전공과목에 대해 영어강의와 한국어강의의 동시 개설이 드물어 학생들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선배 학생들은 신입생의 경우는 피할 수 없는 영어강의의 선택과 영어로 인한 학업적 부담감이 전공지식의 습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과목 자체가 다 부분영어나 [완전]영어강의이기 때문에 전공에 맞춰서 졸업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전공 선택이나 전공필수나 이런 게 다 영어[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학년 전공시간표는] 못 바꿔요. 무조건 들어야 해요. 어차피 들어야 되는 과목이니까 듣긴 들어야 되는데, 뭐, 경제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영어이고, 회계도 영어로 해 버리면 그게 [전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1학년 때부터 영어 때문에 전공수업에] 부담을 갖게 되면, 차이가 확 나버리잖아요.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그랬어요.

부분 영어강의 제도

부분영어강의제도는 학생들에게도 주요 쟁점이다. 우선 학생들은 부분영어강의의 운영이 주로 교수 재량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부분영어강의는 앞서 교수들의 의견에서도 드러났듯이,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현장에서 교수의 재량과 수업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교수님마다 부분영어강의를 해석하는 경우가 다 다르신데, 어떤 교수님들은 책을 원서로 사용하고, 말은 한국말로 설명하면서 이게 부분영어강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고사 때까지는 영어로

수업하다가 기말고사 전까지는 한국말로 수업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아니면 화요일, 목요일 수업이면 화요일은 영어로, 목요일은 한국어로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영어와 한국어를 반씩] 섞어서 하는 거. [사실 완전영어강의도] 교수님마다 다 다른 게 전체를 영어수업 100%라고 해도 영어수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뒤에 10분 이렇게 한국말로 요약을 해 주신다거나 못 알아듣는 학생을 위해서 [한국말로]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중간 중간에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100% [영어강의]하시는 교수님은 없으신 거 같아요. 시험도 교수님마다 다 다른 게, 시험도 일단 한국어 시험도 거의 다 영어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주관식 시험이니까, 주관식 같은 거는 진짜 100% 영어강의인 교수님들은 영어로 써라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영어를 하도 학생들이 못쓰니까 그냥 한국말로 써라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교수님마다 다 달라요.

부분영어강의에서 영어의 활용 정도는 교수자의 재량인 관계로, 수업에서 이를 두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일종의 협상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간강사 선생님들이 합의를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세요. “영어강의라 힘들까요?” 이렇게. 그리고 영어강의인데도 한국말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죠. 영어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도 교수님 재량이고. 대신 자료들은 다 영어로, 최소한 이 정도는, 아무래도 영어강의이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거래? 그런 게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들이] 우는 소리를 해도 영어로 하시지만.

또한 영어의 어려움을 느끼는 교수들의 경우, 학생들도 같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판단하면 영어강의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과행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이에 관한 국내 학생과 비영어권 국적의 외국인 학생의 의견들

이다.

막상 [영어강의]를 하면은 교수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잘 안하세요. 자기들도 힘드시니까. 이제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그래서 영어를 좀 쓰시다가, 한국말을 더 많이 쓰세요. 특히, 애들이 영어로 해도 알아듣는 애들이 몇 명 안 되요.

In EMI class taught by Korean professor, they actually speak Korean in class. Just book in English. When they do presentation and lecture, they speak Korean. Also...they usually allow students [to] write a report in Korean. So it is difficult for me...Some professor allow students to write in Korean in the exam. I think it is unfair to me. because English is also my second language. Koreans can write Korean. It is their native language. So they may be better than me...When [I] check the [course] schedule, there are two kinds of English class. One is 100% English. They say it is English class, but under the class, it is a English class Korean. In that class, they can speak Korean and English. If they strictly say it is 100% [English] class, it should be 100%.

이렇듯, 수업현장에서 부분영어강의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부분영어강의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다.

3) 수강동기, 유인 및 보상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왜 영어강의를 수강하는가? 학생들의 면담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이들을 영어강의로 유인하는 요인을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절대평가가 가장 주요한 정책적 유인요소로 나타났다.

영어에 부담을 가진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절대평가로부터 기대하는 바는 상대 평가인 강의들에 비하여 영어라는 언어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일말의 위안과 기대였다. 절대평가라고 하여 교수들이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강의에서 절대평가는 학생들을 유인하는 강력한 조건임에는 분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 대학생들이 열중하고 있는 취업을 대비한 학점 경쟁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람들이 영어강의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평가라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교수님들[의 영어강의를]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상대평가로 [학생들의] 성적을 따지기 보다는 [모두] 열심히 했으니까 학점 잘 줘야지 그런 식으로 점수를 잘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애들이 영어강의라는 부담을 갖고 있지만 [서로] 경쟁을 안 한다는 그런 심리[적 안도] 때문에 듣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영어강의에서 절대평가가 타당한 이유를 상대평가일 경우,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우선이 되어 버리므로 개인의 영어실력이 수업에서 평가되어야 할 학업성취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주게 되지만 절대평가는 이 같은 상황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나. 수업 측면

1) 효과성

학생들은 영어강의를 통하여 주로 세 가지, 즉, 단어력, 독해력, 암기력 측면에서 학습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인식의 저변에는 첫째, 영어강의의 학습효과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맥락과 둘째, 전공지식보다는 그저 어학 능력이 늘었다는 자조적인 맥락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독해실력 많이 늘었어요. 그 외에는 별로 [는 것이]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 수업이 막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아니니까. 대화능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저희는 원문으로 해석하고 그런 것이 영어수업의 전반적인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늘면 독해, 전공단어.

[영어강의를 통해] 뭔가 실생활에서까지 [영어]회화가 활성화된다거나 이런 거까지는 아닌 거 같고, 그냥 계속해서 원서를 읽는 게 조금 더 편해지고, 왜냐면 전공용어들이 이제 계속해서 비슷한 게 나오고, 맥락이나 뉘앙스들이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 들을 때보다 두 번째가 좀 더 편하고,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영어강의를 많이 듣는 편이라서 영어가 늘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영어문장을] 외우는 기계가 되었어요. 정말 내가 영어를 잘 외울 수 있구나 하는 기계가 되었어요.

그러나 교수면담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학생들도 영어강의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영어강의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들 중 언어로 인한 전공지식차원의 학습 성과의 문제가 특히 빈번히 언급되었다.

아쉬운 거라면 영어강의 수강하다면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이니까 수업의 이해도 면에서 조금 아쉽다. 제가 영어를 잘 하는 편이 아니니까 영어로 물어보고 싶어도 말도 잘 못 하겠고. 수업을 해도 교수님이 한국말로 하시면 확실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서로 질문과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영어로 하면 다 조용해지고. 질문을 하려고 해도 말이 트인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또 교수님들이 영어로 질문하다 보면 그걸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즉, 학생들은 영어강의로 인하여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영어 때문에 학업스트레스만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학생들은 전공지식의 추구라는 본연의 수업목표가 영어라는 언어적 도구에 의하여 상실되고 지배당하는 결과를 비판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교수들의 비판과 맥락이 상통한다.

수업의 의미가 되게 없죠. 영어강의가. 교수님들도 보통 포기하고 수업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안 타까운 생각이 들죠. 수업시간에 맞춰 와서 출석체크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에 기껏 나와서 출석체크하려고 여기에 앉아서 뭐 게임하거나 핸드폰으로 놀고, 그런 거는 좀 슬프죠. [학교에] 오는 의미가 뭘까? 학교를 나와서 내가 [전공지식을] 배우러, 공부하려고 오는 걸 텐데. 이 [영어]수업시간은 내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건가. 이 전공은 그냥 포기했어, 이건 C만 나왔으면 좋겠어.

수업이 잘 안돼요. 왜냐면 이해를 한 학생보다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더 많고, 그리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 보다는 해석하는데 바쁘거든요. 해석하는데 바쁘고, 시험 때 되면, 혼자 써보기가 바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독해수업하려 여기에 오는 건지 아니면 내용적인 것, 과목의 내용을 배우려고 오는 건지 좀 헷갈릴 때도 많고, 그러고서 듣고 나면 내가 왜 들었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 같은 영어강의의 낮은 학습 성과와 불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첫 번째 원인은 영어라는 언어적 장애물에 의하여 형성되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의 제한이다. 특히 이런 경우,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영어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어색함을 토로하였다.

[교수님과의 상호작용은] 일단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강의다 보니까 영어로 질문해야 하나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갑자기 영어로 수업하다가 제가 한국말로 질문한다면 원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못 하는 학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못 알아들어서 못 하는 거 같아요.

일단 교수님들이 애들이 알아듣게끔 영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서 영어로 막 말씀을 하시니까 애들이 한국어로 말씀하셔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전공인데, 그걸 영어로 말씀하시니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애들도 좀 원서를 예습해 오면 알아듣기가 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교수님도 [영어강의에서] 학생들은 영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학생, 이렇게 전제를 하시니까, 못 알아들어도 그거를 제가 ‘저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못 알아들으면, 응? 이렇게 하고 못 물어보고 나중에 무슨 내용이었어? 그렇게 주변[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채우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수업에서 영어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남들은 다 같이 웃고 있는데, 나는 못 웃고 있는 거죠. ‘왜 웃어?’ 이럴 때 자괴감에 빠지고. ‘영어공부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죠.

두 번째 원인은 영어강의로 인한 학생들의 자신감 상실과 상대적 위축이었는데, 이는 수업에서 영어에 능통한 극소수의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에 대하여 영어를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복합적인 감정이 선행요인으로 작동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 또한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들도 공통적으로 인

식하는 바이다. 물론, 학생들의 자신감 상실과 위축은 전술한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원인일 것이다.

학생들은 영어강의에서 느끼는 이와 같은 상대적이고 복잡한 감정을 소외감, 상실감,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표현하였다. 감정의 기저에는 전공지식이 모국어가 아닌 영어라는 언어의 숙달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즉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영어에 의한 전공수업 목표의 변질과도 맥이 닿아 있다.

[영어강의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이런 거는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 영어를 좀 구사할 줄 아는 친구들이 많이 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듣기만 하는 입장이 되는 거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 영어를 굉장히 잘 하는 친구들, 잘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던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영어]실력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가 느끼는 박탈감이라던 지 그런 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영어로 인하여 위축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영어강의]수업시간 만큼은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요. [해당 교과수업에서] 얻고자 하는 바를 다 얻기가 힘든 거 같아요.

내가 영어로 표현해서 말하고 싶어도 [영어 잘 하는] 사람들이 내 영어를 빨음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외부적인 전공내용보다는 빨음, 영어 못함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한편, 학생들이 영어강의에서 느끼는 열등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책이나 영어강의정책에 대한 무기력한 순응 등으로 유도하였다.

사실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제 영어실력이 부족할 수도 ... 그게 거의 90%는 될 거에요 아마. 제가 영어를 잘하면 아 [영어강의가] 좋

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대부분 [영어강의에] 오는 학생들은 저처럼 읽고 듣는 건 잘 해요. 영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부담이 큰 거죠. 수업 자체는 내가 그래도 수업 끝나고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해서 쫓아갈 수 있는데, 이게 수업 자체에 대한 부담보다는, 아, 영어로 발표해야 하는데, 영어로 설명을 하니까, 아, 발표해야 하는데, 아, 시험문제 영어로 나오는데, 아, 이거 에세이 써야 하는데, 하는 부담이 더 큰 것 같아요.

영어강의는 기본적인 학생들의 영어실력에서 결론이 나는 거 같아요. 제가 노력을 해서 채워야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영어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취업을 하려고 해도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되고, 또 speaking 같은 것도 많이 보니까. 그런 현실을 알고 [영어 강의] 수업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이 흐름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영어수업이 [대다수의 국내 학생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리하고 그렇지만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들어야, 어차피 들어야 된다, 영어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어도 하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다 그런 거 [영어 잘 하는] 아이들 보면, 아 저 아이들은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노력해서 거기까지도 못 간다. 이런 게,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그런 한계는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은 사실 그걸 잘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영어를] 쓰면서 컸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대학을 오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학교도 좀 쉽게 들어오고, 쉽게 들어와서 특별한 노력 없이 한다.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죠.

영어강의로 인한 부정적 효과들은 절대평가라는 유인요소에도 불구하고, 학생

들이 영어강좌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만드는 요소로도 기능하였다.

시간표를 짤 때, 웬만하면 영어강의는 피해야지. 영어강의에 한해서 절대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피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보통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나 같이 강의를 듣는 학우들을 보면 [영어강의를] 되게 불편해 하거나 싫어해요. 보통 영어강의라고 쓰여 있는 강의는 선택을 안 하려고 하고. 제 주변에서는 [영어강의를] 좀 기피하고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영어강의면 수강신청을 했다가도 취소하고.

2) 비효율

학생들의 의견에 의하면, 영어강의는 수업준비와 학습의 측면에서 비효율적 요소들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시간이 훨씬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해석하는 부분이라든지, 영어교재를 보면 그것을 한국말로 다시 정리해서 외우는 게 편하니까 시간의 소요가 훨씬 많죠.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요.

못 알아듣는 애들은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 가지고 따로 집에 가서 듣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마지막에는 한국말로 질문을 하면 한국말로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하도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교수님이 다음 시간에 한국말로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은 거 같다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듣죠. 책도 다 원서인데 한국말로 제본된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한국어 책을 따로 사던가, 아니면 복사를 해서 쓰던가, 뭐 이런 돈도 들고 공부도 또 한국말로 했다가 또 영어 단

어를 모르니까 단어공부를 했다가, 이렇게, 두 배로 시간과 돈이 들어요.

[교수님이] 수업을 영어로 하시면 [학생들이] 되게 불편해해요. [수업이]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면, 보통 듣지 않고 나중에 책보면서 [따로 알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수업이 되게 효율이 없는 거죠. [수업에서] 아이들은 자거나 그냥 독학하거나,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만 따로 공부하고.

[영어강의는] 지금 방향이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애들한테 도움 안 되고, 교수님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일단 전공지식을 먼저 쌓아 놓으면 [교수님이]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셔도 들리잖아요. 이제 용어 같은 것도 다 알고 아는 내용을 [영어로] 설명하시니까. 교수님이 앞에서 혼자서 영어로 수업을 계속 하신다고 해서 우리한테 [전공지식이]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한국말로 해도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영어강의의 비효율적 요소는 주로 교수와 학생 간 언어적 소통의 막힘에서 비롯되는 문제들로서, 학습과정의 시간적, 재정적 비효율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특히, 이러한 비효율적 요소들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전공지식 습득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효과적 영어강의를 위한 개선방안

대학의 국제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영어강의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학생들의 인식을 통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의 개선 방향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영어강의는 전공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계되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수들의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던 것으로 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영어강의가 의미 있을 수도 또는 없을 수도 있으므로, 전공의 특성과 교육목표 등이 영어강의의 선택과 운영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지표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한 학생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다.

한국어가 적당한 수업이 있고 그러니까 국문이라든지 우리나라 역사 이런 쪽으로는 한국말로 확실히 배우는 게 나은데, 경제학이나 경영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미국 쪽 이론이 거의 대부분이거나 아니 외국 유럽 이쪽이 대부분이라서 영어로 해도 굳이 상관을 없을 것 같아요.

둘째, 학생들 개개인의 영어실력 수준이 영어강의 개설 시 반영될 경우,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같은 견해는 영어강의를 통해 교육목표의 본질을 충족시키려면 영어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언어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생] 수준별?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어 과목을 선택할 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영어강좌가 개설되면 절대평가라는 배경 안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신의 영어실력]수준별로 하면 오히려 [학습]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요구의 이면에는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충에 대한 교수의 이해와 배려라는 점이 깔려 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영어를 부담스러워 하니까 [교수님이] 그걸 감안해서 수업을 해주셨어요. 설명도 좀 쉽게 하시고, 시험도 그렇게

내시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받는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배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수강생 전원인] 80명을 다 같이 데리고 가는 게 느껴지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만약에 막 목소리도 일부러 역동적으로 바꿔 가시면서 그 수업은 학생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지금도 교수님이 이끌어 나가니까 막 쳐지는 학생들이 그 렇게 많지 않았어요.

셋째, 영어강의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다. 본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어 강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고, 어디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 특히, 영어강의를 수강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보다는 영어 프로그램, 즉, 어학실력향상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영어강의를 들으며 전공지식을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학교에서 [영어강의를 돋기 위하여] 뭔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아마도] 그 부분을 한 80%는 잘 모를 거예요. 영어강의에 대해서 어떤 [지원]정책을 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공지는 늘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대부분] 영어강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영어실력 자체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들이죠. 영어강의 듣는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많아요.

마지막으로, 영어강의의 잣은 정책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이 영어강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영어강의 정책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관점 비교 분석

1. 영어강의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

이번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학 구성원들이 영어강의에 대해 보인 태도가 2000년대 초중반 영어강의 시행 초기와는 달리 변화한 부분이다. 국내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시행한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분분했다. 그러나 이제는 영어강의가 필요한 때임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영어강의 정책을 해당 대학, 전공, 교수와 학생에 따라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의견이 더 두드러지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즉, 영어강의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의에서 영어강의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개선방향 논의라는 영어강의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교수들 모두 영어가 세계 공통언어로서의 위상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서양에 뿌리를 둔 일부 학문의 특성상 영어 사용이 오히려 실용적이라는 점에서 영어강의의 정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학생들도 영어강의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장래 취직이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 때 준비해야 한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단, 영어강의가 필요한 전공 계열과 누가 영어강의를 가르치고 수강할 것인가에 대해선 선별적 태도를 보인 부분은 앞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위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대학이 일괄적으로 모든 교수와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가르치고 수강하도록 ‘강제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가 선택한 권리를 줄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에서 교수와 학생 구성원들은 후자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7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 영어강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앞으로 정부 및 개별 대학에서 영어강의 정책을 추진하고 구체적 전략을 수립할 때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2. 영어강의정책의 목적과 달성도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구성원들에게서 영어강의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공통된 답들은 대학의 국제화, 대학 평가 및 순위 개선, 그리고 학생의 영어실력 향상 등이었다.

첫 번째로 두 학교 구성원들 모두 대학의 국제화가 영어강의정책의 주목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였지만, 각 학교 문화에 따른 답변의 차이도 살펴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은 영어강의란 대학 국제화를 통해 고려대학교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 목적의 일환으로 이해하였다. 또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족 고대’에서 ‘글로벌 고대’라는 이미지 변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지만 앞으로는 영어강의의 양적 확대만이 아닌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경희대학교 교수들도 영어강의가 본교 국제화에 일조한 면은 있지만 아직 질적으로나 접근방식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영어강의정책의 목적이란 대학 평가 및 국내외 대학 랭킹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즉, 영어강의정책을 통해 영어강의 수업 비중을 높임으로써 대학 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경희대학교 구성원들은 영어강의정책의 대학 순위와 글로벌 인재 양성이 라는 이중적 목적에 대해 비판하였는데 학교가 학생의 교육보다 랭킹 올리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였다. 고려대학교의 경우도 영어강의 정책 결과 대학 순위를 올리는 데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세 번째는 영어강의정책의 목적을 학생의 영어실력 향상으로 보는 의견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는 영어강

의가 학생들이 일상생활 및 전공분야에 대한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도록 돋고 국제화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이 있는 반면, 위에서 언급한 대학 평가 및 랭킹을 올린다는 이중적 목적의 성격을 떤다고 지적하였다. 경희대학교는 학과 당 영어강의 할당이 있는데, 이는 대학이 보여주는 교육철학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즉, 대학에서 해당 전공 우수자를 졸업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영어 능력자를 배출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후자에 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고려대학교의 경우도 영어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는 쪽은 학생보다는 오히려 교수 편으로 보인다며 일부 교수는 이를 신랄히 비판하였고 학생들도 이와 비슷하게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이 외 고려대학교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영어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인터뷰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수긍하였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입장의 의견들도 다수 나왔다. 예를 들어, 일부 영어강의는 교수의 영어실력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도 이해하기 어려운 강의가 된다거나 외국인 유학생 중에도 영어실력이 좋지 않아 오히려 고려대학교에 와서 영어강의를 수강하며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인상만 갖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영어강의를 시행할 의미가 없으며, 한국어로 공부하기 위해 한국 대학으로 유학온 아시아권 유학생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영어 강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강의를 개설한다면 영어 구사가 자유로운 교수들이 진행하도록 하여 “깔끔하게 양질의 영어 [강의] 수업”을 주로 제공하고 다른 수업은 좀 더 자유롭게 강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 이 밖에 고려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은 영어강의정책은 고려대학교 졸업생의 사회 진출 및 취직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하는 것일지 모르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은 영어강의정책의 목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거나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영어강의의 목적 자체에 대해 의문을 던졌는데, 영어강의를 수강함으로써 무엇을 얻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수동적으로 “얻는 건 없지만 학점은 또 잘 나오니까 그냥 대충 듣자”는 식의 태도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결국 이러한 영어강의에 대해 학생들은 본인들이 학교에 지불하는 등록금의 가치가 있는 수업인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영어강의를 보면 대학에서 과연 영어강의가 학생의 배움보다 앞서는 것인지 등 매우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즉,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개별 대학기관은 구성원들에게 영어강의를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함께 논의하며 그에 맞는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하되 학생의 배움을 우선시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영어강의정책의 형성과정과 시행과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

인터뷰에 응한 많은 교수와 학생들은 영어강의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영어강의정책의 일방향성과 천편일률적 적용을 지적하였다. 즉, 대학 기관이 일방적으로 영어강의를 강제하는 식의 정책의 일방향적 성격에 대해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정책은 하향전달식(top down policy)이며 학문별, 학과 및 전공 계열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영어강의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영어강의 시행 초기 고려 대학교에서는 교수들이 문과대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적용에 반발한 바 있고, 한 문과대 신임교수는 학교에 영어강의에 대한 “제도” 자체가 부재하다고 비판하였다. 즉, 대학 측이 영어강의가 필요한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영어강의가 필요한 분야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채 신임교수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제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고려대학교 교수는 영어강의 시행 정책 초기에는 정책의 정착을 위해 일률적 적용이 불가피했더라도 이제 시행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영어강의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영어강의를 시행한 지 10년 정도 되어 이에 대한 데이터도 축적되고 평가와 개선방안을 내놓을만한데도 아직도 수동적으로 영어강의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이라는 안타까움을 표시한 교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개선의 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학생을 위한 교육적 목적과 같이 정작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도 지적되었다.

한 고려대학교 교수는 무조건적 영어강의의 양적팽창과 숫자중심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오히려 ‘민족 고대’라고 일컬어지던 학교의 전통적 정체성이나 이미지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제 ‘영어 고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비단 한국인 교수들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외국인 교수도 영어강의의 개발 및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대학이 학원과 같이 변하고 학생들은 수동적 학습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의 경우는 영어강의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변하여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영어강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희대학교의 부분영어강의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아래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영어강의 참여의 동기

영어강의 참여의 동기는 영어강의정책의 강제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수들이 영어강의를 가르치는 동기는 임용 계약상 필수이거나 학교로부터 의무로 부여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는 2003년부터 임용된 교수들은 계약상 모두 영어강의를 가르치도록 되어있다. 영어강의정책 시행 초기에는 영어강의 개발비 명목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교수들의 영어강의를 독려하였으나 이제는 폐지되고 없어 교수들의 영어강의를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퇴시킨 것으로 보였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영어강의 이수가 졸업요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어강의 과목들을 수강하였고 이러한 강제성 때문에 수강 의욕이 떨어진다는 학생도 있었다. 또 절대평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수강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어실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최고학점을 받고자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 쉽고 비교적 수강하기 수월하다는 부분이 수강의 이점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외에도 영어에 대한 흥미와 실력 향상을 위해서 영어강의를 수강하거나 영어강의의 토론식 수업 방식과 참여가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를 선호하여 영어강의를 수강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또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편한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수강 동기가 영어강의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며, 영어강의가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영어강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 긍정적 측면이 더 부각된다는 연구결과와도 부합하는 부분이다(심영숙, 2010).

5. 영어강의의 효과성

영어강의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었으나 부정적인 쪽의 의견이 더 다양하고 지배적이었다.

가. 긍정적

영어강의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주로 학생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볼 수 있었다. 즉,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특히 영어로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신장되며, 전공 지식을 쌓고 영어점수 및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주로 교수들의 관점이었는데 학생들도 특히 심리학과 같이 서구 학문 전통이 강한 사회과학 전공들의 경우 영어강의로 수업을 들으면 전문 용어 학습에 용이하고 독해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였다. 또 학생들은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욕심이 생기는 자극을 받고 영어를 배워야하는 필요성을 느끼게끔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외 강의 중심이 아닌 토론과 참여가 자유로운 강의 분위기를 영어강의의 긍정적인 부분

으로 꼽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어실력 향상이라는 영어강의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첫째, 경희대학교의 학생들이 지적하였듯 영어실력이 늘었다하더라도 어휘력과 독해 능력을 비롯한 영어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실력이 향상되었을 뿐이고, 전공지식보다는 어학능력만 늘었다는 자조섞인 설명을 덧붙였다. 단, 해외 대학원 유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보았다. 둘째, 영어는 수업에서 지식을 배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영어실력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아직 교수나 학생이나 영어 실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더 어렵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학생들도 이러한 의미에서 원어민이 영어를 가르치는 실용회화 위주의 수업은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설명하였다. 셋째, 영어강의를 통해 실제 영어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영어 사용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만 받게 되며, 이 때문에 영어 학습이나 영강수업 진도를 위해 부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은 원래 영어실력이 좋았던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흥미로운 부분은 교수들이 영어강의는 교수들 자신의 영어실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점이다. 영어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교수 본인의 영어감각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교수들의 이러한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신랄히 비난하였다.

나. 부정적

위와 같이 학생과 교수들은 영어강의가 교수와 학생의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 의견도 있는 반면, 영어강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지적이 압도적이었다.

첫 번째는 교수의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기인한 전달력의 한계이다. 교수의 전달력이 부족하여 강의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한 학생은 등록금을 내고도 마땅히 받아야 할 양질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교수도 교육자로

서 본인의 선택이 아닌 영어강의를 강제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날카로이 지적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교수들은 수업 담당 교수가 아무리 영어를 잘 한다 해도 학생들의 영어 이해도가 떨어지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양방지식 전달 한계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학“교육 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수에게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한편 이에 편중한 일부 교수들의 “직무태만이라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자괴감”과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토로하였다.

덧붙여 교수들은 영어강의 수업 현장에서 영어로 준비한 강의 내용만을 진행하다보니 그 외 다양한 사례나 강의 내용 이외의 사회적 이슈와 개인적 경험 또는 수업환기용 농담 등 다양하고 풍부한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즉, 영어로 준비한 이상의 수업을 하기 힘들다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또 영어강의 수업에서는 수업의 수준과 질이 저하되어 대학교 수준의 수업이 아닌 마치 중학교 수준 정도의 전공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고백하였다.

면접참여 학생들도 영어로 강의하는 경우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는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이를 통한 영어실력 향상에도 한계가 있고 심지어 영어강의 수강 이수 같은 전공 과목을 한국어 강의로 재수강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교수가 영어를 잘 한다 하더라도 학생이 이해를 못해 교수가 다시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면 수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경희대학교 학생들도 영어강의 수업에서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기가 어렵고, 마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의미도 없고 교수도 포기하고 수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는 영어가 도구일 뿐인데 수업의 질과 내용보다도 영어가 앞서는 주객전도의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즉, 인터뷰 참여자들은 영어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영어가 중요하나? 전공이 중요하나?” 묻는 것과 같고, 영어강의로 수업을 하는 것은 “영어공부도 아니고 전공공부도 좀 덜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

다. 이는 첫 번째 문제로 지적된 영어강의의 수업 내용 전달력 한계와 연결되는 문제점이다.

세 번째로 지적된 영어강의의 부정적 측면은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수가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학생들은 영어 강의 수업을 따라잡고 수업에서 놓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영어로 된 수업내용을 한국어로 해석하고 다시 정리하거나, 한국어로 번역된 책 등을 별도로 참고하기도 하고, 강의내용을 녹음한 것을 다시 들으며 정리하는 등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을 기울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따로 독학을 하되 영어강의 시간 중에는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이러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뛰어넘어 별도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기도 하였고, 영어강의 수강 이후 한국어로 같은 수업을 재수강하거나 영어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학생은 영어강의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되물으며 이는 학교를 위한 정책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하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영어강의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다 보니 교수의 연구 역량이 저하되고 학교에서 요구하거나 교수가 원하는 수준의 연구와 실적을 내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네 번째 문제점은 두 번째 문제점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수업 시간에 교수와 학생 간의 교류가 부족한 부분이었다. 교수가 강의 외 내용을 공유하거나 주의 환기용 농담 등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도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교수와 서로 어색하고 낯설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을 잘 하지 않는데 영어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더 못하게 되고, 모르는 것은 차라리 나중에 친구들에게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이와 같이 수업중 학생들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영어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영어강의 수업 시간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도 학생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한계

가 있으니 본인이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는 무기력한 순응과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한 학생은 1학년 전공 수업부터 영어강의에서 “잘 하는 친구”와 “못 하는 친구”로 구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수업 시간에 남들은 웃고 있는데 본인은 못 웃고 다들 “왜 웃어?”라고 생각하며 자괴감을 느끼고, 혹여 수업 시간에 발언을 할 경우 본인의 발음과 영어실력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 두려워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결국은 영어강의를 회피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소위 영어강의로 인한 대학 내 계층화(English divide; Jon & Kim, 2011) 또는 계층화(박소연, 2008)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영어강의 시간 중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역으로 외국인 유학생도 영어강의 시간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인 교수가 영어 강의의 이해를 돋기 위해 한국어를 섞어 쓰거나 한국 학생들이 토론이나 발표를 준비할 때 한국어를 쓰면 외국인 유학생도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영어강의 문제점의 원인

위와 같이 영어강의가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에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었다. 우선 교수의 입장에서는 첫째,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심지어 한 예로 고려대학교는 국내 대학 중에서도 영어강의를 실시한 지 매우 오래된 학교이고 그 중 경영대학은 국제화로 잘 알려져 있다고 여겨지는데도 신입생들이 고려대 경영대에 입학하면 영어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수들은 학생들이 입학하여 영어강의를 들을 역량을 기르고 적응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 간의 영어실력 편차가 큰데 이는 대학 이전의 교육환경 영향이 결정적이므로 자칫 교육의 기회와 결과의 세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세 번째는 전공 특성에 따라 영어강의가 어렵다는 설명인데, 이것도 전공자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흔히 영어강의가 매우 적절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영학이나 심리학의 경우도 영어로 강의할 때

사례연구와 상담현장 등 전공 내용상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수들은 학교의 강제적 영어강의 정책과 영어강의 내용을 소화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현실 사이에서 압박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영어강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수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발음이 좋지 않아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강의력 전달의 한계로 영어강의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강의 담당 교수가 강의 의무를 학생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즉, 교수가 강의로서 설명해야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학생 발표와 프로젝트로 수업을 메꾸는 현상이 지적되었다.

7. 영어강의의 형평성

영어강의의 형평성에 대해서 면접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강의는 교육적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첫째, 영어강의는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개인별 영어실력에 따라 불공평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영어실력이 좋은 교수와 학생들에게는 편리하고 유리하며, 교수는 강의를 낮은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진행하고 학생의 경우 절대평가로 좋은 성적과 편하게 졸업할 수도 있다. 반면, 영어실력이 좋지 않은 교수와 학생은 강의와 학습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실력에 따라 영어강의의 학점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영어강의가 불공평하다고 여겨졌으나, 일부 교수들은 꼭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학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두 번째로는 영어가 강의내용의 전달수단에 그치지 않고 강의 내용의 이해도와 성적에 연결되어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이나 조기유학 경험과 같은 대학 이전 교육배경에 따라 성적이 가늠되어 이러한 배경이 없는 학생들에게 영어강의는 불공평하다고 지적된 부분이었다. 이

는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강의 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국제학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정시입학 학생인 경우 영어실력이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영어실력이 낮을 수 있어 영어강의정책이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교수가 영어강의정책이 한국 사회의 엘리트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영어는 엘리트 계층이 기득권의 재생산을 위해 발명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세 번째는 학생의 학습권 면에서 영어강의의 불공평한 면이었다. 한국어강의가 배제된 영어강의만 개설하는 경우 학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수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받았다. 한 교수는 한국 대학의 수업이니 한국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여야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좋은 학점을 얻고 한국 학생이 소외되는 현상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과연 영어강의는 한국 대학에서 누구를 위한 강의인지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놓고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8. 경희대학교의 부분영어강의제도

경희대학교의 영어강의는 완전영어강의와 부분영어강의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영어강의제도는 경희대학교 영어강의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부분영어강의는 완전영어강의와 달리 수업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하는 영어강의를 지칭한다.

그러나 부분영어강의제도에 대한 학교 측의 제도적 기준과 지침이 미비하여 영어강의에서 어느 정도로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할 수 있는 지가 모호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재만 영어로 된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하거나 영어강의인데도 교수가 학생과 한국어로 강의하기로 합의하는 형태 등의 편법적 운영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수업 담당

교수의 재량과 수업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부분영어강의는 일관성 없이 운영 되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부분영어강의제도가 무의미하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분영어강의제도에 대해 경희대학교 구성원들 간 찬반의 입장이 대립하였는데, 부분영어강의지만 한국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순기능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이 있었다. 반면 부분영어강의와 같은 방식은 영어강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편법적 교수법이며 단순히 대학평가와 순위를 위해 영어강의비율을 올리려고 개발한 방법일 뿐이라는 부정적 입장도 찾아볼 수 있었다.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 국내 대학의 영어강의는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 많은 한계를 동시에 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한계의 상당부분은 영어강의 시행방식상의 강제성과 유연성 부족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각 대학에서의 영어강의정책은 대학 기관의 준비 상황, 전공별 특성 그리고 교수 및 학생의 영어실력과 필요성 등에 따라 유연성 있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영어강의 정책을 모든 학과, 대학에 일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준비단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시하고, 강의 참여자의 개인차와 요구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영어강의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는 하지만 영어강의의 필요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어 강의가 제대로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교육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본래의 목적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어강의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행 대학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양적 확대 위주의 영어강의정책에서 영어강의의 질과 내실을 다지는 것으로 정책의 초점이 전환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전환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학생의 학습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통해 습득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어강의의 방식은 이러한 기본전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 향후 영어강의정책의 포커스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에는 이제까지 일률적 영어강의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수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영어 약자”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영어강의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 제언과 방안은 다음과 같다.

2. 제언

가. 일선 대학에 대한 제언

1) 영어강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

첫째,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하는 대학들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영어강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앞서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본교 영어강의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영어강의의 목적이란 대학의 국제화, 대학 순위, 학생의 영어실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 등으로 생각한다는 여러 가지 대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어강의의 양적 성장만을 추구한 정책의 결과, 학생을 위한 교육이 소외되는 현상 등에 대한 비판의 의견들도 함께 볼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 가운데는 영어강의의 목적이 분명치 않아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점을 위해 대충 듣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거나 학생이 아닌 학교를 위한 정책인 것 같다는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한 학생은 만약 영어강의의 목적이 영어라는 언어의 학습이라면 영어와 수업 난이도의 수준을 낮춰서 영어 습득이 좀 더 수월하게끔 해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중점을 두는 대학들은 그 구성원들과 함께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합의해가는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영어강의 정책의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방적 하향전달식이 아닌 상향식(bottom up decision making process)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각 학과나 단과대학이 영어강의의 필요성과 그 필요한 정도

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배하여, 학과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영어강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 계열 대 이공 계열, 국어교육 및 한문학과 대 국제학부 및 경영대학을 비롯해 수학교육, 간호학과 등의 전공들은 영어강의의 필요성과 그 정도가 서로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전공별로 영어강의 의무수강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어강의의 무조건적 양적 팽창의 정책을 지양하고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 고려대학교 학생이 언급하였듯이 영어강의 수를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학생들이 영어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영어실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영어강의 정책과 참여자

또한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영어강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 모두 영어강의정책의 강제성에 대해 소리 높여 비판하였다. 우선 학생들이 영어강의와 한국어 강의 중 선택할 수 있는 수업 선택권을 갖도록 하여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 교수도 강의의 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인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교수 임용에서 영어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영어 강의가 수월한 영어 원어민 교수와 강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어민이나 영어에 능숙한 한국인 교수와 같이 영어강의 전담 교원을 두어 이들이 주로 영어강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영어 강의가 가능한 교수를 임용하고 그들만이 영어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대학의 경우, 외국인 교원이 상당수 있는 이공계열에서도 전공의 핵심이 되는 기초수업은 반드시 원어민 강사만이 가르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단, 전지현(2002)의 연구에서 강사의 국적이 영어강의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의 영어강의 정책 대상이 되는 교수들은 한국 대학에 근무하는 한국인 교수들이 대상이 되는데 비록 해외 유학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교수들 간에도 영어실력의 차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개인별로 수업 내용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그리고 보편적 영어강의 정책이 아니라 필요한 인원만큼 영어강의 담당자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영어강의 담당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강의 시수를 조절해주며 수업 보조 등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 영어강의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교수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3) 영어강의 운영 방법

영어강의 개설 및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나온 중요한 의견 중 하나는 학생의 영어실력에 따라 영어강의를 분반하자는 것이었다(김명환, 2007; 오희정 외, 2010). 수강신청 시 사전에 등록된 영어능력 수준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법이나, 전공수업보다는 교양수업에서 이러한 영어실력 수준별 분반의 방법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 정책과 달리 여러 수준별·단계별 영어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선택 폭도 넓히고 좀 더 효과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영어강의의 개설과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예컨대 고려대학교의 실용영어와 같이 영어 회화 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 강의나 영어강의 수강에 도움일 될 수 있는 별도의 수업이 많이 개설되기를 희망하였다. 또 영어 잘 하는 학생들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 Pass/Fail로 들을 수 있는 1, 2학점짜리 수업과 같이 영어를 잘 못해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 개설을 제안하였다. 고려대학교나 경희대학교의 교수학습개발원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강의 수강을 돋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간 맞춰 가기 어려우니 정규

학기 수업의 성격을 떤 강의를 수강하기를 선호하기도 하였다. 또 홍보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덧붙여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어강의 의무수강이라는 부담 때문에 휴학을 해서 영어 공부를 따로 하는 학생도 있었다. 한 학생은 이러한 현상을 꼬집어 말하며 영어강의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교가 형편상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갈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영어 회화 위주의 수업 등을 비싸지 않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영어강의 수업에서 한국어 혼용이 공개적으로 허용되기를 원하는 학생도 있었고, 교수가 수업에서 학생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이 영어강의 시간에는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영어강의에서 한국어를 혼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영어강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바 있다(강순희 외, 2007; 박혜숙 외, 2006; 박혜숙, 2009).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영어강의정책을 확대 실시할 경우, 교수와 학생이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교수가 영어로 강의를 가르치고 또 학생은 영어강의를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게끔 돋는 여러 지원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 중요한 점은 영어강의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학교 측은 영어강의 진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의 부분영어 강의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강의에 대한 자세한 수업 지침의 부재와 일관성 없는 정책의 시행은 수업 현장에서 혼란과 과행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강의에서 한국어 혼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면 어떠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쓰도록 허용할지를 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히 결정한 후 영어강의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 강의를 포함한 원어강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참고할 만하다.

4) 전공계열별 영어강의의 운영

마지막으로 현 영어강의 정책이 전공 계열과 개별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은 앞서 여러 번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이공 계열과 인문사회 계열별로 영어강의 정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공 계열의 한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현재 영어강의 정책은 이공계열의 전공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문사회 계열에 적합한 방식으로 영어강의 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공 계열에서 중요한 것은 저학년 때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을 착실히 다질 필요가 있으므로 학년별로 차별화된 영어강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학부 4년 내내 전공과목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헤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학년을 위한 전공 핵심 과목들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가르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박혜숙 외, 2006; 박혜숙, 2009), 여기에는 이공 계열에서는 전공수업과 마찬가지로 전공 공부를 위해 중요한 교양필수 과목들도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공 계열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수월하게 듣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관련 영어 단어집만을 정리하여 제공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수학과 과학 분야 과목을 쉬운 영어로 들을 수 있는 기초 영어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즉, 미국의 중고등학교 기초 수준의 영어로 된 수학과 과학 수업 자료를 학교에서 제공해주어 학생들이 이를 기반으로 전공 심화과정의 영어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과학 과목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수준별 수업을 영어권 학교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내용의 학습 비디오를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이 제작해서 학생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자유로이 접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대학 수준의 과학 등의 전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이공 계열과 달리 인문 및 사회계열의 경우는 1, 2학년 때부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화 중심의 실용영어 수업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듯이, 영어실력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수업들이 좀 더 많이 개설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학문을 위한 영어, 실용 영어, 토론을 위한 영어

등의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나. 정부 및 언론기관 등에 대한 제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강의와 관련하여 일선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정부 정책 및 언론기관의 평가 등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와 언론기관 등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는 외부의 환경적 압력이 대학으로 하여금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행동양식을 결정하게끔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대학의 영어강의 시행방식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와 내용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여기서 이를 상론하지는 않겠지만, 개괄적인 수준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수년간 수도권 사립대학에서 영어강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중앙일보 등 언론평가에서 영어강의 비율을 국제화의 주요한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와 함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영강을 예전처럼 평가지표로 삼아 이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별 대학 스스로 영어강의에 대한 (내/외부적) 질적 검증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국제화 수준을 쉽게 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서 너도 나도 영강 비율 증대에 나섰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양적 팽창 위주의 영어강의 확대 정책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강의 강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학 내부 혹은 외부적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지만 일부 영어강의들은 학생들의 학습 성과나 영어능력 증진 양면 모두에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대학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해야 할 필요한 능

력과 소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관단위 평가 인증을 하고 있고, 경영학, 건축학, 의학 등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제도도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평가기제를 통해 현재 각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영어강의의 질을 평가하고 이것이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사례와 대비한 우리나라의 영어강의 시행방식의 효과성 측면이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인근국가(중국,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을 불러 영어강의의 효과와 시행방식에 대해 논의한 결과에 따르면 이를 동아시아 국가에서 영어강의의 주된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기존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모든 강좌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강의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물론 조건이 되는 내국인 학생들도 이러한 영어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와 여전히 비슷한 한국의 경우 국제학부와 같이 전 강좌를 영어로 강의하는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와 함께, 기존의 모든 학과에 대해 새로 채용되는 모든 교수들로 하여금 영어로 강의하도록 강제하거나, 또는 학과별 영어강의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운용 측면이나, 교수학생들의 영어 준비도, 교수학생에 대한 영어지원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본질적으로 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진다. Byun et. al(2011)이 지적한 바대로 교육과정상 영어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혹은 규정에 의해 영어로 강의해야 하는 (신임) 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강의하는 아이러니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교수가 연구년으로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동일과목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어강의로 바뀌는 것도 비일비재한 일이 된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해 본격적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어강의를 시행하는 것이 비영어권 아시아 국가의 상황

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해 보다 실증적인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벌써 영어강의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 종 차대한 문제를 여전히 ‘막연한 감(gut feeling)’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정부와 학계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장소연, 박혜선(2004a). 영어 강의의(English Medium Instruction) 실태 및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 성향에 대한 조사 연구. *연세교육연구*, 17(1), 33 53.
- 장소연, 박혜선(2004b). 공학분야에서의 영어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에 대한 기초 연구. *공학교육연구*, 7(1), 87 96.
- 강순희, 서 혁, 신상근, 이종원, 이현주, 최진영(2007). 사범대학 영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교과교육학연구*, 11(2), 637 656.
- 교육인적자원부(2004).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
- 김명환(2007). 대학의 영어 강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영미문학연구*, 22, 243 259
- 김민정(2007). 대학 영어전용 교과의 수업 방법 개선 방안 탐색과 적용: 수행공학 모형(HPT Model)을 바탕으로. *교육공학연구*, 23(3), 31 57.
- 김종복, 안재욱, 남순건, 박영국(2006).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강의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김종복(2012). 영어강의 질적 개선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맹은경, 한호, 김현욱, 김성완(2011). 효과적인 대학 영어강의 운영을 위한 퍽자 요구분석 및 지원방안. *영어학연구*, 17(3), 269 301.
- 박소연(2008). 대학 영어강의에서의 학습자의 경험 탐색: K대 영어강의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연구*, 1(2), 21 38.
- 박혜숙(2009). 국내 대학생들의 전공영어강좌에서의 학습전략과 유능감 성취에 관한 질적 장기 연구. *교육심리연구*, 23(1), 197 217.
- 박혜숙, 박인우(2006). 강의 언어가 강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7(3), 319 337.
- 송영수(2008). 대학 영어전공강좌(EMI)의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IPP 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4(3), 61 84.
- 신소영, 최수정(2012). 전공영어강의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및 운영방안 탐구. *현대영미어문학*, 30(2), 1 25.
- 심영숙(2010). 영어매개강의에 대한 대학생 인식 연구. *영어학연구*, 16(3), 47 67.

- 오희정, 이희원(2010). 효과적인 영어 강의의 특성과 지원 방안 탐색. *현대영어 교육학회*, 11(1), 191-212.
- 장나영(2011). 대학 영어 강의 정책의 비의도적 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 K대 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원석, 백승아, 이용우(2011.06). 대학 영어강의 ‘인플레’ 현장을 가다. *월간중앙*, 134-141.
- 전지현(2002). 대학 영어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Foreign Languages Education*, 9(4), 233-251.
- 정영철(2009).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전공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현대영미어 문학*, 26(3), 191-207.
- 최정윤, 김미란(2007).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CR2007-85.
- 탁상훈(2011.2.23.). 흔들리는 대학 영어 강의 실태는? 조선일보.
- 황종배, 안희돈(2011). 대학 영어강의의 효과: 전공지식과 영어 능력 측면에서. *한국영어학학회지*, 11(1), 77-97.
- 홍성연, 민혜리, 함은혜(2008). 효과적인 대학 영어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의 특성과 수강 지원 방안 S대학교 학습자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6(3), 305-329.
- Ammon, U., & McConnell, G. (2002). *English as an academic language in Europe: A survey of its use in teaching* (Duisburger Arbeiten zur Sprach- und Kulturwissenschaft 48). Bern: Peter Lang.
- Byun, K., Chu, H., Kim, M., Park, I., Kim, S., & Jung, J. (2011). English medium teaching in Korean higher education: policy debates and reality. *Higher Education*, 62, 431-449.
- Jon, J. E. & Kim, E. Y. (2011). What it takes to internationalize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English mediated cours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J. D. Palmer, A. C. Roberts, Y. H. Cho & G. Ching (Eds.), *Globalization's influence up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ast Asian higher institut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Kim, K. R. (2011). Korean Professor and Student Perceptions of the Efficacy of English Medium Instruction. *Linguistic Research*, 28(3), 711-741.

Maiworm, F., & Wachter, B. (2002). *English Language taught degree programmes in European Higher Education: Trends and success factors*. Bonn: Lemmens.

Wachter, B., & Maiworm, F. (2008). *English taught programmes in European higher education. ACA Paper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Bonn: Lemmens.

중앙일보교육개발연구소(2011). 2011년 대학 평가. <http://www.jedi.re.kr/>

대학알리미(2011). <http://www.academyinfo.go.kr/>

RR 2012 03

**대학 유형 및 특성에 따른 국제화 추진 전략 연구 [II]
대학 영어강의 정책의 효과적 추진전략 탐색**

발행일 2012년 10월

발행인 변기용

발행처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주 소 (136 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전화: (02) 3290 2658

팩스: (02) 3290 5325

<http://hepri.korea.ac.kr>

인쇄처 제일문화사 (02) 921 7221
